Economy p/7
삼성이 드라마를 만든 이유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제3084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김광현 메이저 도전 선언

대통령 퇴장과 기립한 여야 의원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자 여야 의원 대부분이 기립해 박 대통령의 퇴장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해 시정연설 후 박 대통령 퇴장 때는 야당 의원들이 일어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단통법 이통3사만 배 불렸다

마케팅 비용 줄고 보조금 감소 따른 이익 챙겨

**SKT 순익 5.7% 증가
LGU+ 영업익 17% 뛰어
KT도 3분기 실적 호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결국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만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휴대전화 유통 현장과 시민단체 등에서 거론하고 있는 단통법이 이통사를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현실화 되고 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실적에서 이미 그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은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3분기 매출 4조3675억원, 영업이익 5366억원, 당기순이익 531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이날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지만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5.9%, 5.7% 증가했다.

매출은 LTE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늘었다. SK텔레콤 가입자 중 LTE 이용자는 9월 말 기준 1600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가입자의 57%를 넘어섰다. 연말까지 전체 가입자의 6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기순이익은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 영향으로 상승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늘어난 마케팅비가 발목을 잡았다. 3분기 SK텔레콤의 마케팅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0.6% 늘어난 83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으로 과징금 371억원을 냈고, LTE 장비 고도화 등 시설투자비가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또 9월 11~17일 일주일 영업정지를 당한 영향도 다소 있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27일 실적발표를 한 LG유플러스는 3분기 영업이익 174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0% 늘었다. 매출액은 2조76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은 756억원으로 8.6% 올랐다.

LG유플러스의 3분기 실적 신장은 마케팅비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불법보조금 등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LG유플러스는 마케팅비로 전 분기 대비 13.2% 감소한 4772억원을 지출했다.

특히 무선부문 매출은 LTE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익 증가로 전년 동기에 비해 6.5% 성장한 1조2969억원을 달성했다. 3분기 LTE 서비스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9%, 전 분기 대비 4.7% 증가한 약 818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무선 가입자의 73.3%다.

31일 실적발표를 하는 KT 역시 실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지난 25일 취합한 증권사의 3분기 실적 전망 평균치에 따르면 KT의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5조9293억원, 3147억원, 1505억원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3.4%, 2.24%, 10.49% 증가하는 것이다. 영업이익은 2분기 8304명의 명예퇴직으로 일회적인 명예퇴직금 1조527억원이 반영돼 8130억원 손실을 보였으나 3분기에는 1240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3분기 마케팅비용도 전 분기 대비 9.0% 감소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예전처럼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보조금 과다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4분기에도 이통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내년에도 가입자 유지,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 상승, 매출 증가, 비용 절감 등으로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10대 근시 심각한 수준

10명 중 8명… 스마트폰·컴퓨터 영향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근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안과학회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4회 눈의 날(11월 11일)'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10대 근시 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12~18세의 근시와 고도 근시 유병률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근시 유병률은 80.4%로 60대의 근시 유병률(18.5%)의 4.35배였다. 고도 근시 유병률(12%)은 60대(1.5%)보다 8배나 높았다. 특히 청소년 근시 환자의 약 70%가 중등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눈의 피로도를 높이는 기기를 통한 학습이 근시를 일어키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만수 대한안과학회 이사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근시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근시를 안경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근시는 향후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안과 질환으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이 자리에서 '청소년 근시 예방 권고안'도 소개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독도서 강강술래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29일 독도에서 진도 소포리 마을주민 40여명이 강강술래 공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 기한 내 처리 합의

박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 공무원연금 개혁 당부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 가량 회동했다.

세월호 관련 3법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이달 말까지 처리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가 각자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들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국민 눈 높이에 맞게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 여야 지도부는 "정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김무성 대표가 요청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와 관련, "개혁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나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한 '적자예산'임을 인정하면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내 3대 핵심 과제의 예산안 반영을 설명하고, 규제 개혁 및 정부조직법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요청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연합뉴스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힌 '이케아'

기자 수첩

김 수 정 <생활유통부 기자>

'가구 공룡' 이케아가 채용 과정에서 각종 잡음을 내며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보여준 이케아의 모습은 채용 지원자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겼다.

깜깜무소식인 채용 결과 통보는 채용 공고에 나온 "채용 결과는 3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가 무색할 정도였다.

영어로 된 채용 시스템은 불친절했다. 공식 웹사이트에는 지원하기 첫 단계로 "위의 '이케아 채용정보 검색하기'를 클릭해 관심 있는 업무 분야를 검색해 보세요"라고 나와있다. 들어가 보니 온통 영어. 옆에 '온라인 지원 가이드 다운로드하기'를 누르니 지원 과정이 이해가 됐다.

특히 시급 관련 문제가 심각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미스터리 한 그들의 시급 정책은 지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국정감사에서 시급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다. 이케아코리아 측에서 시급을 92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밝힌 것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국감에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결국 시급은 7666원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시급이 9200원이라고 한다면 이케아는 40시간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36만8000원에 주휴수당 7만36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결국 김한진 이사는 "7666원이 맞다"며 명확히 하겠다고 답했다.

시급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표현으로 혼란을 가져온 것은 글로벌 가구 공룡 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오픈 전부터 부정적인 이슈들은 분명 한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이케아에게는 좋은 징조는 아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길 바란다.

오늘 2차 고위급 접촉 사실상 무산

북한, 청와대에 전통문… "남한 선택에 달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29일 우리측에 보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북한의 부당한 요구 수용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리 정부가 제의한 30일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방안은 일단 성사가 힘들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국방위 서기실 명의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 채널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왔다.

통일부는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우리측이 관계 개선의 전제,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이)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리겠는지는 우리측의 책임적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 4일 황병서 등 북한 고위급 3인방의 인천 방문 당시 10월 말~11월 초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13일 북한에 '30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을 열자'고 제의했지만 북측은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아 왔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입법 로비' 김재윤 의원, 보석 허가 호소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무죄를 다투고 있어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커졌다며 보석 허가를 반대했다.

에드워드 영국 왕자 방한… 청소년 격려

●영국 왕실의 에드워드 왕자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국제금장총회' 참석차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따르면 에드워드 왕자는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주한영국대사관 측이 왕자를 맞았으며 한국 측의 특별한 의전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왕자는 행사 기간 주한영국대사관을 방문하고 워크숍, 포럼 등지에서 참가 청소년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리퍼트 신임 주한 미국대사 오늘 부임

●마크 리퍼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부임을 위해 29일(현지시간)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트 대사는 28일 오전 아메리카항공편으로 출국해 한국 시간으로 29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내 경유지에서 비행기 편에 문제가 생겨 출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퍼트 대사는 3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北 최룡해, 황병서보다 먼저 호명… 2인자 복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여자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군인식당을 현지 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이날 김 제1위원장의 시찰에는 최룡해(사진) 당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태복 당비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박도춘·강석주·김양건·김평해·곽범기·오수용 당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등이 동행했다.

중앙통신이 공식 행사에서 최룡해를 황병서보다 먼저 호명한 것은 지난 5월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난 후 처음이다.

중앙통신이 이날 '5월1일 경기장' 준공식을 전한 별도의 기사에서 최룡해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호명한 점으로 미뤄 최룡해가 최근 상무위원에 복귀하면서 그의 권력 서열이 황병서보다 앞선 것으로 보인다.

최룡해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호명된 것은 지난 4월 총정치국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육·해·공 및 반항공군 장병 예식 행사가 마지막이다.

/조현정기자

세월호 실종자, 시신 인양

발견 하루만에 수습…남은 실종자 9명

세월호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지 하루 만에 수습됐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9일 오후 전남 진도군 해역에 침몰한 세월호 선체에서 시신을 빼내 물 위로 건져 올렸다. 구조팀은 해경 경비정으로 진도군 팽목항 시신 안치소로 시신을 옮겨 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신원 확인에는 최장 12시간가량 소요되지만, 단원고 황지현(18)양으로 추정했다. 황 양의 아버지 황인열(51)씨는 29일 오후 8시45분경 이 시신의 사진을 보고 신발 사이즈와 옷차림 등으로 미뤄 딸이 맞다며 오열했다.

시신은 키가 165㎝ 가량이며 발 크기는 250㎜, 상의는 '24'가 적힌 긴팔 티셔츠, 하의는 남색 쫄바지를 입은 상태였다.

이 시신은 지난 28일 오후 5시경 선체 4층 중앙 여자 화장실 부근에서 발견됐다. 지난 7월18일 세월호 식당칸에서 여성 조리사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102일만이다.

구조팀은 발견 직후 수차례 수습을 시도했지만, 거센 조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이날 오후 5시경 민간 잠수사를 투입해 1시간여만에 수습했다. 이번 시신 수습으로 295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남은 실종자는 9명이 됐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긴급대피 환자 혈압체크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내 의약품 보관소에서 질산가스 유출사고가 발생해 병원관계자들이 환자들을 긴급대피시키고 혈압을 체크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병원 질산 누출… 1100명 대피 "휴"

원액 폐기 과정서 사고 발생… 인명 피해는 없어

경찰병원에서 질산이 누출돼 의료진과 환자 등 1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병원 측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37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경찰병원 본관 2층 병리과 검사실에서 시약용 질산 원액 1ℓ가량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외래·입원환자 400여 명과 직원 700여 명이 전원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질산 원액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병원 관계자는 "1ℓ들이 병 7개에 들어 있는 질산 7ℓ를 유해폐기물통에 넣고 뚜껑을 닫았는데, 잠시 후 '퉁'하는 소리에 돌아보니 뚜껑이 열려 있고 주변에 뿌려진 질산에서 옅은 주황색 연기가 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질산 원액은 2011년 구입했으나 효과가 낮아 2013년부터는 쓰지 않았다"면서 "우리 병원에서 질산 원액을 폐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덧붙였다.

질산은 부식성과 발연성이 있는 강산으로, 질산가스를 호흡기로 다량 흡입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유출된 질산을 모래로 덮는 등 제독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서울대 이공계생 63% "실험자료 조작 경험"

서울대 이공계 학부생 10명 중 6명은 실험실습 보고서 데이터를 조작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내 자치언론인 '서울대저널'은 지난 6월 1~17일 이공계 학부생 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3%가 '본인이 직접 혹은 가담해 실험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실험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지어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데이터를 조작한 이유로는 75%가 '이론적 수치에 근접하게 바꿔 보고서를 수월하게 쓰려고'라고 답했다.

'다른 수강생의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을 봤거나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응답률은 전체의 84%였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66%는 '데이터 조작이 문제이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다혜기자

우리들은 꼬마 원시인 29일 오전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내 리사이클링 숲속 생태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설가 신해철이 그리운 이유

여의도 패트롤

"정치 이야기도 다 음악이다."

고(故) 신해철(사진)이 어느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정치와 사회 문제가 모두 음악과 관련 있다'라는 그의 소신을 보여준다. MBC '100분 토론'에 그만큼 자주 나온 연예인은 없었다. 소위 '듣보잡' 국회의원보다도 더 자주 토론에 참여해 비정치인으로는 가장 인기 있는 논객이었다.

서강대 철학과를 중퇴한 그는 항상 대학에서 공부를 안했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음악엔 항상 '철학'이 있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끝없는 질문은 지금 30~40대에겐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다. 마치 친한 학교 선배를 잃은 듯한 이 슬픔을 많은 이가 공감하고 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그가 국회에 진출해주길 원했다. 바른 말로 소신을 펼칠 기회를 갖길 바랐다. 우리 문화에는 정치에 본격 입문하면 타락한 것처럼 여기는 '정치 혐오'가 있다. 그런 정치 혐오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그처럼 뛰어난 논객형 연예인이 정치를 했으면 했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질이 '지성'과 '소신' 그리고 '지도력'이라면 그는 모두 갖춘 드문 사람이다. 평소 말과 글로 보여주는 지성, 주위의 시선이나 대중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소신, '마왕' '교주'라 불릴만큼 독보적 카리스마를 갖췄다. 타고난 정치력을 펼칠 기회를 가졌어야 했다.

19대 들어 청년비례라는 이름으로 생각지도 못한 젊은 의원들이 탄생했다. 그들을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그 정도의 비례대표성이라면 신해철이야말로 그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의 대표로 비례의원이 될 만했다. 지역구 의원은 보통 20만명의 대표성을 가진다. 팬을 포함해 정치적인 면에서 신해철을 지지하는 이는 100만명은 족히 넘을 것이다. 언론 자유, 공교육, 인터넷 통제에 관한 그의 소신을 직접 입법자로서 펼쳤으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그의 공이 더 컷으리라 본다.

본회의장에서 그의 연설을 볼 수 있기를 내심 꿈 꿨던 필자로선 사망 소식에 큰 아쉬움과 슬픔을 느꼈다. 바른 말을 하는 소신있는 정치인을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진 지금이다. 신해철이라면 그 누구의 (심지어는 변덕 많은 대중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여의도엔 국민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보다 소신있게 국민을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의 독설과 소신 발언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었다.

14년 전 신해철이 '음반 불법 다운로드'를 주제로 대학 특강을 왔을 때, 질문을 한 적 있다. "음반은 돈 내고 듣자는 가수들은 정작 영화나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안하나"는 다소 도전적 질문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답했다. "미안하다. 나도 다운받아 보는데, 앞으론 안 그러겠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의도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

/유보좌

서울여대, 노정혜 교수 초청 특강

서울여대는 28일 '국제매너를 갖춘 대학 지성인' 강의에 노정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초청, '현대과학 속의 인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노 교수는 특강에서 서울여대 초대학장인 바롬 고황경 박사와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자인 일가 김용기 선생을 예로 들며 "동시대를 살았던 두 선구자가 가진 혜안을 우리도 배움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혜정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28일 교내 학생누리관 소극장에서 '현대과학 속의 인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서울여대 제공

미국대사관과 함께하는 명사 특강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는 다음 달 5일 오후 3시 경희대 경영대학 오비스홀 111호에서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하는 명사 특강'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한국에서의 미국학에 대한 이해를 확대·심화하고 국제 사회에 대한 적응력과 리더십을 함양한 차세대 국제 리더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미국학 전문가 마이클 디바인 박사가 초청돼 '미국의 대통령 박물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1000층 수직 도시에 비행선

metro Russia

'건축 판타지' 전시회

최근 모스크바 중앙건축센터에서 러시아의 유명 건축가 아르투르 스키잘리-베이스의 '건축 판타지' 전시회가 열렸다.

건축 판타지는 스키잘리-베이스가 공상과학적 측면에서 미래 도시를 표현한 전시회다. 미래 건축물의 건축 조감도와 설계도, 모형 등이 전시됐다.

스키잘리-베이스는 "전시품 중 '수직 도시'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수직 도시는 내가 생각한 미래 도시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에는 지금과 같은 건축 모델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는 최소 200층에서부터 500층, 100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고속 철도로 연결,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다. 건물 내부에는 주거공간은 물론 각종 산업·농업 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최첨단 설비 덕분에 소음이나 공해 걱정은 없다. 수직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꼭대기에 비행장이 조성돼 있어 소형 비행선이 편리하게 이착륙과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키잘리-베이스는 "내가 제안한 미래 도시가 공상과학 소설에나 등장할 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50년 뒤 이 같은 건축물이 지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미래의 지구는 늘어난 인구와 로봇을 모두 수용하기에 면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복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초고층 빌딩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레기나 우짜쉐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젊은 세대에 합리적인 도시 '파리'

metro France

프랑스 파리가 젊은 세대가 사는데 가장 합리적인 도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대행사 드코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파리는 평균 생활비와 급여액을 고려했을 때 젊은이들이 가장 살기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 25개의 세계 대도시들이 조사 대상이 됐다. 생활비 평가 항목엔 영화 관람비, 햄버거 가격, 교통비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각국의 시간당 최저 임금도 고려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파리는 시간당 임금이 12.84 달러(약 1만3500원)로 총 25개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시간당 임금이 3.94 달러(약 4100원)인 서울과 크게 대비된다.

/아네스 콘도민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쾅!" 발사 6초 만에 폭발

美 ISS행 우주화물선 사고… 러시아제 아닌 미국산 논란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향하던 무인 우주화물선이 발사 직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NN·AP·AFP 등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오후 6시22분께 미국 버지니아주 월롭스섬의 기지에서 무인 우주화물선이 발사된 지 6초 만에 폭발했다.

발사 직후 심하게 요동치더니 발사대 위에 수직으로 떨어졌으나 현재까지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폭발한 우주화물선은 민간 우주항공사 '오비털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이 만든 것으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사용할 식량과 실험장비 등 물품 2267kg을 싣고 있었다. 나비아스 미국 항공우주국(NASA) 대변인은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승무원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물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발사 직후 폭발하는 우주 화물선. /AFP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폭발 사고에 따라 나사의 국제우주정거장 화물 수송 방침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주 화물 수송 주도권을 러시아에게 빼앗기기 않기 위해 자국 업체에게 무리하게 업무를 맡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1년 우주왕복선 운영을 중단한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대한 화물 수송을 러시아 등 다른 나라 우주선에 의존해 오다 상업궤도운수서비스(COTS)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라 민간 우주항공사인 '오비털 사이언스 코퍼레이션' '스페이스 X'와 국제우주정거장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오비털 사이언스의 우주화물선 '시그너스'는 이날을 포함해 모두 네차례 발사됐으나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오바마 따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메리 버크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의 선거 유세 도중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활짝 웃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틀만 격리생활 하겠다"

에볼라 환자치료 美 간호사 퇴원 후 입장 밝혀

에볼라 환자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최근 병원에 격리됐다가 퇴원한 미국인 간호사가 이틀만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격리된 생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현지시간) CBS뉴스에 따르면 케이시 히콕스 간호사의 변호인 스티브 하이만은 히콕스가 이틀간 격리 생활을 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이만은 히콕스가 이틀 이상 갇혀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조만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과 다름없는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히콕스는 에볼라 발병국인 시에라리온에서 24일 뉴저지 뉴어크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뉴저지주의 '21일 의무 격리' 방침에 따라 뉴어크대학병원에 격리 수용됐지만 '인권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에볼라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사흘 만에 병원 문을 나섰다.

히콕스가 거주하는 메인주는 그에게 자택에서 자발적인 격리 생활을 하도록 권유했다. 에볼라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21일째 되는 날까지 외출을 삼가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히콕스가 이틀만 격리 생활을 하겠다고 선언, 메인주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 주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자발적 격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선미기자

"해외주식펀드 환헤지형 택할 필요 없어"

중위험·중수익 노린다면 손실 덜한 환노출형이 적합

금융가 사람들

■강형구 한양대 교수

국내 박스권 장세로 해외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에 투자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환헤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환헤지 상품을 선택한다. 펀드 판매 금융회사가 환헤지를 권하는 측면도 있고, 주식 수익률에서 외환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아서다.

실제로 대부분의 해외주식펀드는 환헤지형으로 출시됐고 자금이 들어오는 규모도 환노출형에 비해 환헤지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의외로 환헤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에 베팅한다. 채권의 경우 100% 환헤지를 해야하지만 주식은 환노출형에 투자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환헤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며 "그 전까지는 환헤지가 약간 더 성과가 좋았으나 이후에는 환노출형 펀드의 성과가 더 우수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일반투자자들도 자신이 가입한 상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투자전략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환노출 쪽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 심사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강 교수는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를 전반적으로 연구한다.

그는 "장기투자에 있어서는 환헤지하지 않은 전략의 성과가 좋았다"며 "일반투자자들도 자신이 가입한 상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투자전략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면 환노출 쪽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한다면 해외주식펀드에 가입할 때 환노출형을 택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환헤지를 하지 않으면 주가가 좋을 때 환헤지를 한 상품보다 수익률을 더 낮게 취할 수 있겠지만, 그 대신 주가가 떨어질 때 손실을 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가 상승 국면에선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주가 수익률을 깎아내리는 요인이 된다.

반면 주가 하락장에서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가 오르면서 저절로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환헤지 상품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강 교수는 이에 대해 "확실한 투자전략을 갖고 시장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고자 한다면 환헤지를 해야 한다"며 "다만 이는 헤지펀드나 공격적 운용을 하는 펀드와 같이 뚜렷한 투자전략에 따르기 때문에 외환 변동은 변수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한정했다.

또 주식과 달리 해외채권 투자는 환헤지가 필수적이다. 환헤지를 하지 않으면 채권의 수익률이 외환 변동에 휩쓸릴 우려가 크다.

지역별로는 신흥국보다 선진국에서 환노출형 전략이 좀더 들어맞는다.

그는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신흥국의 경우 주가와 환율의 이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선진국 중심으로 이런 선택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보금자리론 내달 금리 0.25%p 인하

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u-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 만기에 따라 현행 연 3.45%(10년)~3.70%(30년)에서 연 3.20%(10년)~3.45%(30년)로 낮아진다.

또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아낌 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포인트 낮은 연 3.10%(10년)~3.3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현행과 같이 소득 수준과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60%~3.40%가 적용된다.

/김민지기자 minji@

이재용 부회장, "중국사회 기여하겠다"

"삼성은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중국에서 사랑받고 중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은 29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보아오 포럼이 아시아 국가의 경제회복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쿠다 야스오(전 일본총리) 보아오 포럼 이사장 등 이사진 11명과 함께 시진핑 주석을 접견했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후쿠다 이사장 등과 함께 보아오 포럼 이사 대표 자격으로 별도의 발언시간도 가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3년 임기의 보아오포럼 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저녁에 양제츠 국무위원이 조어대에서 주관한 만찬에도 참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간 수차례에서 걸쳐 시진핑 주석과 만난 바 있다.

지난 2010년 2월과 8월 시진핑을 두차례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을때 삼성전시관에서 영접했고, 8월 난징 유스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도 만난 바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 당시 시진핑 저장성 당서기를 수원사업장으로 초청해 우호 관계를 다졌다. 또 중국 쑤저우에 이어 시진핑 주석의 고향인 산시성의 시안에 공장을 건설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5월 세운 중국 산시성 시안의 반도체 공장은 70억달러(한화 7조7000억원)를 투자해 만든 곳으로,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10나노급 V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ksgit@

왕태욱 부행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직원들이 '2014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가치 최우수기업' 상을 수상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銀, '사회가치 최우수기업'에 선정

신한은행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최로 열린 '2014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사회가치 최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한국의 경영대상'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혁신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창출하며, 고객과 직원, 지역사회의 가치를 증대시켜 대내외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에게 수여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국내 금융업계 최초 사회책임보고서 발간과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채널 운영 등 다양한 혁신적 경영활동을 통한 사회책임경영을 높이 평가받아 '사회가치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경영활동을 통해 은행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삼성그룹이 드라마를 만든 이유

issue&view

드라마 '최고의 미래' 인기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PPL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 전달 효과 판단

"삼성이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삼성그룹은 28일 웹드라마 '최고의 미래'를 선보였다.

이 드라마는 가수지망생인 남자 주인공 '최고'와 삼성 신입사원인 여자 주인공 '미래'가 우연히 하우스 셰어링(한 집을 시간을 달리해 같이 쓰는 것)을 하면서 펼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지역전문가에 도전하는 삼성 직원 미래와 도시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수 데뷔를 준비하는 최고가 꿈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걸그룹 '걸스데이' 민아와 신인 배우 서강준이 주연을 맡았고 가수 홍경민과 배우 최성국, 이선진, 고세원 등이 호흡을 맞춘다.

삼성이 이처럼 지상파 방송국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드라마를 제작해 직접 서비스하는 이유는 무얼까.

표면적인 배경은 '삼성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알리기' 위함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삼성의 이미지는 '딱딱하다' '찔러도 피 한방울 안 날 것 같다'와 같이 다소 차가운 게 사실이다.

'최고의 미래'에서 주인공인 최고와 미래가 대화하고 있다. /삼성블로그 캡처

하지만 삼성의 실제 분위기나 직원들의 우애는 여느 직장보다 따뜻하고 두텁다는 후문이다.

최홍섭 삼성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삼성의 이미지가 딱딱한데 절대 그렇지 않다. 드라마를 통해 삼성의 역동적이고 훈훈한 모습, 그리고 삼성이 원하는 인재상을 드러내고 싶다"고 말했다.

'최고의 미래'가 웹드라마라는 점도 눈여겨 볼 만 하다. TV가 아닌 PC나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기기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제작이나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드라마 배급·유통에서도 온라인 특유의 장점을 누린다.

15분짜리 5부작인 이번 드라마는 이날 오전 9시 삼성그룹 블로그(blog.samsung.com/abettertomorrow)를 비롯해 유튜브, 네이버 TV캐스트, 다음 TV팟에 공개됐다.

그간 기업들은 PPL(작품 속 간접광고)이나 제작비 지원 등의 형식으로 메시지를 간접 전달했지만 이젠 자체 제작으로 직접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삼성이 '최고의 미래'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듯이 스마트폰 갤럭시의 탄생 배경과 성공 스토리를 다룬 드라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드라마에 최신 갤럭시를 노출할 수 있고 웹드라마라는 점에서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잇점이 있다.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TV로 드라마나 광고를 보는 사람이 현격히 줄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웹이나 모바일 콘텐츠를 활용하면 비용이나 효과 측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도 미쓰이그룹, 일본항공(JAL) 등의 유명 기업들이 자체 제작 드라마로 재미를 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기업이 드라마나 영화를 방송국이나 극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업 36% "구조조정 계획"

기업 10곳 중 4곳이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울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29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1182개사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 유무'를 조사한 결과, 35.5%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39%)이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35.8%), 중견기업(29.9%) 순이었다. 이들 기업의 18.1%는 지난해에도 이미 구조조정을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하는 구조조정 시기는 '올해까지'(48.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내년 상반기까지'(43.7%), '내년 하반기까지'(5.7%), '내후년(2016년) 이후'(1.9%) 등이 뒤를 이었다.

구조조정 규모는 전체 인원 대비 평균 7% 수준으로 집계됐다.

시행하려는 구조조정 방식은 62.3%(복수응답)가 '권고사직'이라고 답했다. '정리해고'(23.9%), '희망·명예퇴직'(15%) 순이었다.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이유로는 '조직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51.1%,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29.8%),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23.4%),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19.6%),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15.5%), '잉여 인력이 있어서'(14.8%) 등을 언급하는 기업도 많았다.

/이국명기자 kmlee@

코스피 급등 코스피가 급등하며 1960선을 회복한 29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5.49포인트(1.84%) 오른 1961.17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1960선을 넘은 것은 지난 8일 이후 3주 만이다. /연합뉴스

600대 기업 "11월 경기도 안 좋을 듯"

기업경기실사지수 93.6… 7달 연속 100 이하

국내 기업들이 11월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11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3.6으로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이는 경기회복세 부진, 3분기 주요기업 실적 악화, 대외 불확실성 등의 부정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향후 경제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에도 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만큼 구조개혁,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망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내수(96.5), 수출(97.5), 투자(95.8), 자금사정(96.7), 재고(102.9), 고용(99.4), 채산성(94.0)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 10월 실적치는 93.1으로 7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부문별로 보면 내수(97.9), 수출(95.2), 투자(95.2), 자금사정(97.3), 재고(105.0), 고용(99.4), 채산성(93.4) 등 모든 부문에서 부진했다. /박성훈기자

market index <29일>

코스피 1961.17 (+35.49)

코스닥 561.03 (−1.26)

금리(국고채 3년) 2.21 (−0.01)

환율(원·달러) 1047.70 (−1.60)

뉴스&뉴스

SKB '번호지킴이' SK브로드밴드는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에 일정시간마다 자동으로 변경되는 일회용 전화번호를 노출할 수 있는 '번호지킴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SKB 제공

한국 기업환경 세계 5위

●올해 한국의 기업환경이 역대 최고인 세계 5위를 차지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창업(34→17위), 건축인허가(18→12위), 전기공급(2→1위), 소액투자자보호(52→21위), 퇴출(15→5위) 등 5개 부분에서 순위가 오른 덕분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순위(5위)는 주요 20개국(G20) 중 1위다. 전체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뉴질랜드, 홍콩,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미국 7위, 영국 8위, 캐나다 16위, 일본 29위, 중국 90위, 러시아 62위로 나타났다. /이국명기자

9월 경상수지 76억달러 흑자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2년 7개월 연속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가 76억2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8월의 72억달러보다 4억2000만달러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1~9월 누적 흑자는 618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50억4000만달러)보다 68억2000만달러(12.4%) 많다. /김민지기자

연금복권520 제174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3조	321006
		7조	479123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617314
4등	100만원	각조	49411
5등	2만원	각조	830
6등	2000원	각조	81, 88
7등	1000원	각조	1, 3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윤종규 내정자 "행장 겸임한다"

KB 안정화 위한 조치…"인사청탁시 불이익 줄 것"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내정자가 조직안정을 위해 국민은행장과 겸임키로 했다.

29일 KB금융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본사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열고 윤 내정자를 회장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공식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내정자는 적절한 시기까지 회장과 국민은행장직을 겸임하는 한편 KB의 재건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게 된다.

윤 내정자는 "조직을 빨리 추스려 고객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리딩뱅크로 복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며 "경영 승계 부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겸임하는 것이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내정자는 KB금융 본점에 업무 공간을 마련해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또 KB 위상을 회복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도 안게 됐다.

그간 KB가 겪은 일련의 악재로 직원 사기는 물론 고객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수익성 역시 은행권의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다.

우선 KB의 경영 공백을 메우는 일이 급선무다.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현재 KB지주는 윤웅원 부사장이, 국민은행은 박지우 부행장의 직무대행 체제로만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국민은행은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갈등과 금융당국의 검사, 임직원 제재로 일부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 왔다.

이에 대해 윤 내정자는 "KB 내부에서 (회장 후보가 추천된)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승계 시스템과 안정적인 경영 전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익성 회복도 윤 내정자가 당면한 중요 과제다.

올 상반기 국민은행의 순이익은 5462억원에 불과해 주요 은행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윤 내정자 역시 이같은 점을 고려해 성과와 역량 위주의 인사를 단행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그는 인사청탁을 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윤 내정자는 "외부에 쓸데없이 눈 돌리지 말고 성과와 역량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청탁이 들어올 경우 반드시 수첩에 기록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와 인사를 어떻게 할지를 연말까지 고민해 전략 방향과 추진과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과의 원만한 관계 회복도 절실한 시점이다. LI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윤 내정자는 "인수 후 통합작업 등을 이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다는 역량을 잘 설명해 좋은 결과를 얻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사회의 책임론과 퇴진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영진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장 역시 거취 문제에 대해 "KB금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윤 내정자는 내달 21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으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9일 서울 세종대로 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제공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인하"

김재천 주택금융公 사장

김재천 신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9일 "주택연금의 초기보증료를 낮춰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가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공사 본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향후 경영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년층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 주택연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이란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한다.

김 사장은 "현 2%인 초기보증료를 낮춰달라는 수요자들의 요구가 많다"며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초기보증료만 낮출 경우 연금재정에 무리가 가게 돼 연보증료를 약간 올리는 방식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임기 내 내실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3~4년간 공사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었다"며 "금융기관의 자산이 갑자기 늘었다는 것은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보험업계 '빅데이터' 도입 활발

사기 방지에 적용 … 정보유출 우려 가이드라인 필요

정보통신의 발달로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의 활용이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서 국내 보험업계에서도 이를 활용한 시스템 개발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 '정보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험사기 방지 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체 보험사기의 25%를 잡아내 보험료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보험사기 고위험군 분석체계를 도입하고 사고 위험도를 점수로 측정하고 있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8월 SK텔레콤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전략적 제휴 및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나섰다.

이 밖에도 국내 보험사들은 고객관계관리(CRM)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CRM을 활용하면 고객 분류 세분화와 시간 위치에 따른 표적설정이 가능해 담당 설계사가 추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입해지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보험업계의 빅데이터 활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에 가장 큰 위험부담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다.

올초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태를 비롯해 최근에는 홈플러스와 제휴한 보험사가 고객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카드업계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보험업계가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최근 발생한 정보유출 등의 우려로 보험사들이 빠르게 이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김종준 하나은행장(왼쪽)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합병계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제공

하나·외환銀 합병계약…"통합 급물살 타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조기 통합 추진을 결의한 후 약 3개월 반만이다.

이로써 두 은행의 조기 통합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뒀다.

29일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외환 은행이 이날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통합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은행 이사회는 "저성장·저마진 환경 속에서 국내 은행산업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잠재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적인 글로벌 금융그룹 도약을 위해 통합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합병에 따른 존속법인은 (주)한국외환은행으로 정해졌다. 다만 공식적인 통합 은행의 명칭은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이다. 합병 비율은 하나은행의 보통주 1주당 외환은행의 보통주 2.97주며 합병기일은 내년 2월 1일이다.

이번 이사회 의결과 계약 체결에 따라 하나금융은 이르면 10월말 금융위에 은행 통합 승인 신청을 낼 계획이다.

통합 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60일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강조해 온 '연내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사측의 협상 진도가 변수로 남아있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27일 사측이 조합원 900명에 대한 징계안을 38명 징계로 대폭 축소하자 조기통합 관련 노사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대화의 장에서 조기통합을 포함해 모든 것을 논의해보고자 하지만 조기통합 반대와 2·17 합의 준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합의를 뛰어넘는 조건과 요구도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지역의 창조 일자리,
대한민국의 희망 일자리!!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고용노동부가 심사하여 시상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부문

대 상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고용 대상별 Total Job Matching 프로젝트 – I ♥ Busan Company –

최우수상

〈광주광역시 북구〉
오래된 미래에서 찾는 창조적 일자리 프로젝트

〈경기도 수원시〉
지역고용 역량 강화를 위한 창조경제형 수원 뉴턴 사관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홍삼제조 전문 마스터과정

〈전라남도〉
창조 ICT융합 메이커스 프로젝트 – "돌아 오는 청년, 활기찬 전남" 실현을 위한 창조 ICT융합 전문인력 양성 –

우수상

〈서울특별시〉
'일자리를 프린트하다' – 도심 제조업의 부활, 세운청계 르네상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특수재봉기 활용 봉제인력 일자리 창출사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신발산업 취업연계 기업맞춤 인력양성 사업

〈대구광역시〉
SW융합 창조경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동차튜닝 엔지니어 양성사업

〈인천광역시〉
일자리 양산을 위한 글로벌 서비스산업 허브 도시 구축 프로젝트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콘텐츠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창조산업 일자리 만들기 200프로젝트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허브 도시 육성을 위한 TCS (Total Contact Service)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경기도〉
경기도 고용집중산업 기반 '사공오공(4050)' 중소기업 빈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

〈경기도 파주시〉
출판전문 글로벌 인재양성

〈강원도 속초시〉
지역특화 사회안전서비스(TSS) 전문인력 양성

〈충청북도〉
新한류! 세계 속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K-Beauty 전문가 양성과정

〈충청남도〉
아파트 소비자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청소 • 세차 일자리창출 사업

〈전라북도〉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농생명 산업을 이끌 π형 인재 양성 사업

〈전라북도 완주군〉
로컬푸드 활용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 사업

〈경상북도〉
취업에서 근로환경 개선까지 「산업단지 일자리 원스톱체계 구축」 사업

〈경상북도 영주시〉
베어링제조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경상남도〉
항노화바이오 비즈니스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미래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혁신도시 사업체 수요 맞춤형 –

사회적기업 부문

대 상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지원형" 모델발굴 :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 추진

최우수상

〈경기도 광명시〉
공공성 혁신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과 일자리창출

〈경상북도 경주시〉
민간주도형 공정여행 사회적기업 브랜드 육성사업 "셋째날의 경주"

우수상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착한(着韓) 게스트하우스 운영

〈인천광역시 남구〉
고령자 전문인력을 활용한 장난감 수리

〈광주광역시 북구〉
빛(LED 光)이 그린(Green) 새싹 일자리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젝트

〈경기도 부천시〉
지역과 대학이 공유하는 부천 SE City 프로젝트

〈경기도 파주시〉
자회사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일자리 창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천안시 원도심 활성화 핑크 프로젝트)

〈충청남도 서천군〉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육성 (입는 모시에서 먹는 모시로)

〈전라남도〉
온정이 넘치는 「H.U.G 전남」프로젝트 – 오늘을 딛고 내일을 꿈꾸는 행복사회 만들기 –

〈경상북도 포항시〉
전통시장과 생명의 물길이 만나다 – 해양 · 문화관광 패키지 공동 브랜드화를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고용노동부

‘잘만테크’ 소액주주들 뿔났다

모기업 모뉴엘 법정관리로 주가 곤두박질 상폐 위기 몰려

Issue&View 검찰·관세청 수사중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ZALMAN

한때 정치테마주로 묶이며 질주했던 코스닥 상장사 잘만테크의 주가가 모기업 모뉴엘의 갑작스러운 법정관리 소식에 곤두박질쳤다.

잘만테크 소액주주들은 "이러다 상장폐지되는 것 아니냐"며 연일 성토하고 있다.

안 그래도 내리막길을 걷던 잘만테크의 주가는 최근 며칠간 세자릿수 동전주로 전락했다.

2010년 1만원대를 웃돌았던 주가가 소위 코스닥 '잡주' 신세가 된 것이다.

모기업이자 로봇청소기·홈시어터PC 등을 생산하는 중견가전업체 모뉴엘은 지난 20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모뉴엘과 자회사인 컴퓨터 부품업체 잘만테크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감리에 착수하자 잘만테크의 주가는 세자릿수대로 떨어졌다.

잘만테크의 주가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800원 안팎에서 거래됐으나 법정관리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21일 1510원으로 하락한 뒤 22일부터 본격적인 하한가 행진을 거듭했다. 이달 24일 1000원 아래로 밀린 뒤, 29일 현재 6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며 575원까지 주저앉았다.

모뉴엘이 실적을 부풀려 시중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부도가 나자 잘만테크에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몰아쳤다.

모뉴엘 사태의 핵심은 분식회계다. 박홍석 모뉴엘 대표는 수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작성한 뒤 시중은행들로부터 67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

검찰은 29일 박 대표에 대해 허위 해외매출을 꾸며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도 무역보험공사의 진정에 따라 모뉴엘의 불법 사기대출 관련 의혹을 중앙지검으로 다시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과 관세청은 박 대표가 거액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표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출국금지 상태로 알려졌다.

모뉴엘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안그래도 급락한 주가에 전전긍긍하던 잘만테크 주주들은 상장폐지란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하고 있다.

잘만테크의 대출 중에서 모뉴엘 박 대표가 지급보증을 선 217억원 등에 대해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도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잘만테크는 29일 외환은행 대출금 약 3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모기업의 법정관리로 인한 자금 압박이 현실화됐다.

잘만테크에 투자한 은행들도 손실 우려에 빠졌다. 산업은행은 잘만테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회수한 뒤 KDB캐피탈을 통해 재투자했으나 모뉴엘 사태로 이를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결국 모뉴엘 사태와 잘만테크의 상폐 위기는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모든 리스크와 부실 책임은 소액주주들에게 떠넘긴다는 해묵은 논쟁을 또 다시 불러일으킨다.

모뉴엘 법정관리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인 17일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점 역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혹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이런 퇴행적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단순히 한두 사람의 비도덕적 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회계법인과 감독당국 등 시장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인연금증카드’ 1만좌 돌파

우리카드는 29일 군인연금 수급자를 위해 출시한 '군인연금증카드'가 신규 발급 1만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첫 선을 보인 '군인연금증카드'는 군인연금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연금증서기능부터 다양한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 상품은 기능에 따라 신용·체크·일반카드 3종으로 나뉘며 8만4000여명에 달하는 모든 군인연금 수급자는 버스무료이용서비스(매월 월2회, 최대 2500원 캐쉬백)와 종합적인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전국 군복지시설에서 10~20%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대형마트·백화점·병의원·학원·대중교통에서는 10%할인, S-OIL 리터당 70원 등이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체크카드는 우리은행계좌로 카드결제계좌를 지정한 수급자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백화점 10% 할인과 온라인서점 3000원 할인, 통신요금, 패밀리레스토랑 할인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우리카드는 신규 발급 1만좌 달성을 기념해 '군인연금증카드' 발급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내달 1일부터 두달간 군인연금증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한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는 모바일 주유 상품권 1만원이 제공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군인연금증카드는 군인연금수급자들의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카드상품"이라며 "기존 연금수급자 뿐만 아니라 매년 3800여명의 신규 군인연금 대상자도 전역 익월부터 전국 군복지시설 할인과 버스무료 이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행복나눔 연금보험 협약식' IBK연금보험은 다음달 3일부터 고객이 기부단체를 선택하는 기부형 연금보험인 '(무)IBK행복나눔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관계자, 조희철 IBK연금보험 대표이사, 홍정남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대표이사,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관계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관계자,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관계자 등이 28일 롯데호텔에서 'IBK연금보험 행복나눔 제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연금보험 제공

농협-우투證 새 이름은 ‘NH투자증권’

초대 수장 김원규 대표

NH투자증권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합쳐져 새로 탄생하는 통합증권사의 사명이 'NH투자증권'으로 정해졌다. NH투자증권의 수장은 김원규 우리투자증권 대표가 맡는다.

농협중앙회는 29일 열린 브랜드위원회에서 NH농협금융지주가 요청한 통합증권사 명칭을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사명은 중앙회가 지난 8월부터 고객과 농협 임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명칭이었다.

중앙회 측은 "NH투자증권은 단순명료해 농협금융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증권사의 전문성을 함축하고 있다"며 "발음이 쉬워 기억하기 쉬운장점도있다"고 전했다.

인수 초기에 검토됐던 '우투' 명칭은 3년 사용기간 제약에 따른 재변경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NH농협금융지주가 개최한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에서는 통합증권사 사장으로 김원규(사진) 현 우리투자증권 대표를 선정했다.

자추위는 선정 배경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 리더십 측면에서 통합증권사의 조속한 경영안정과 성장에 걸맞은 인물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김 사장 내정자는 오는 12월 17일 예정된 통합 양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같은 달 31일 통합증권사 출범일에 함께 취임할 예정이다.

김 사장 내정자는 1960년 출생으로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LG증권에 입사해 사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표이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30년 경력의 정통 증권맨으로서 증권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 조직을 아우르는 통솔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NH농협금융지주는 통합증권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지난 1월 통합추진단을 발족해 인사·조직의 화학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정기자

"최고의 카드 달인 찾아라" 삼성카드는 29일 임직원의 카드 상품 지식 수준을 높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전! 상품 골든벨'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제공

LG전자 3분기 영업이익 111% 증가

스마트폰 2010년 이후 분기 최대 실적
4분기 울트라HD TV 중심 B2B 확대

천덕꾸리기에서 효자로 변신한 모바일 사업 덕분에 LG전자 3분기 실적이 놀랄만큼 좋아졌다.

LG전자는 3분기 매출액이 14조9164억원, 영업이익 461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에 비해 111.8% 증가한 수치다. 시장전망치인 4404억원을 소폭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개선된 이유는 스마트폰 사업 덕분이라는 게 LG전자의 설명이다.

스마트폰 사업을 이끄는 MC사업본부는 3분기에 매출 4조2470억원, 영업이익 1674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0년 이후 세운 분기 최대 실적이다.

전략 스마트폰 G3(사진)를 비롯한 G시리즈와 L시리즈III 등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17%, 95%씩 증가했다. 스마트폰 판매량도 1680만대로 2분기에 기록한 스마트폰 분기 최대 판매기록(1450만대)을 갈아치웠다.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판매량도 650만대로 2011년 5월 처음 출시한 이후 사상최대 기록을 세웠다.

HA사업본부는 주요시장인 북미지역 경쟁심화 등으로 본부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 4% 하락,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다. AE사업본부는 계절적 비수기 진입과 전년 대비 국내 가정용 에어컨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업본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하락했다.

이날 LG전자는 4분기에는 울트라HD TV를 중심으로 한 LCD TV시장과 디지털 사이니지를 비롯한 B2B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HE사업본부는 울트라HD TV, 올레드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 확대와 지속적인 원가구조 최적화 활동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할 전략이다. 휴대폰은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LTE 스마트폰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시장점유율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MC사업본부는 전략 스마트폰 'G3'를 비롯한 'G시리즈', 'L시리즈II' 스마트폰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HA사업본부는 원가 경쟁력을 강화한 시장선도 제품 출시와 비용 투입 효율화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AE사업본부는 고효율과 지역특화 제품을 내세워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특히 국내시장에서는 상업용 에어컨 매출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문화가 있는 날 '100원 영화' 즐기세요" 올레tv는 '문화가 있는 날' 캠페인에 동참, 매주 마지막 수요일 영화를 100원에 서비스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레tv 제공

삼성 NFC 프린터 유럽서 잇단 호평

A4 레이저 프린터 판매 1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NFC(근거리 무선통신) 모노 레이저 프린터와 복합기가 유럽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은 개인과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출시한 모노 레이저 복합기 'M2070FW' 시리즈와 분당 28페이지 출력이 가능한 본격 사무용 고속 모노 레이저 프린터 'M2835DW' 시리즈 제품이다.

독일 소비자 기관 '슈티프퉁 바렌테스트'가 발간하는 테스트지는 10월호에서 "삼성 프린터와 복합기가 뛰어난 출력 품질과 내구성을 갖췄고 NFC 출력 기능 덕분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삼성 프린터 'M2835DW'와 복합기 'M2070FW', 'C460W'를 각각 모노 레이저 프린터, 모노 레이저 복합기, 컬러 레이저 복합기 부문 평가에서 1위 제품으로 선정했다.

영국의 IT 매거진 PC 어드바이저는 10월호에 'M2835DW' 모델을 '2014년 최고의 업무용 모노 레이저 프린터'로, 'M2070W'는 '2014년 최고의 보급형 프린터'로 선정했다. 프랑스 소비자 정보지 '큐 슈아지흐'도 10월호에서 두 제품을 '베스트 초이스' 제품으로 선정했다.

PC 어드바이저는 "'M2835DW'은 단점을 찾기가 힘들었던 제품"이라며 "인쇄 품질이 훌륭하고 디자인도 환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유럽 A4레이저 프린터 시장에서 판매 1위에 올랐다. 삼성 모노 레이저 복합기 'M2070FW' 시리즈는 지난 9월 유럽에서 출시된 이후 월 평균 2만대 이상 판매 되고 있다. 사무용 고속 모델인 'M2835DW' 시리즈도 올해 2분기 출시 이후 기존 NFC 기능 없는 모델 대비 월 평균 판매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송성원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사업부 전략마케팅팀 전무는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입증했고 나아가 삼성전자가 선도하는 모바일 프린팅 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최신 IT 환경과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제품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푸조 2008, 연간 7000대 팔겠다"

한불모터스 동근태 상무, 르노삼성 QM3 등과 경쟁 선포

국내 수입차시장 중위권 업체인 한불모터스가 모처럼 신바람이 났다. 29일 야심차게 공개한 '푸조 2008'의 계약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 한불모터스 동근태 상무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사전 계약 5일 만에 600대를 돌파했는데, 어제까지 집계 결과 1000대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말까지는 1200대 정도 계약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푸조 2008은 소형 CUV(크로스오버 비클)로, 유럽에서 르노 캡처(르노삼성 QM3), 미니 컨트리맨, 닛산 쥬크, 쉐보레 트랙스 등과 경쟁하는 차다. 차체의 길이×너비×높이는 4160×1740×1555mm로, QM3보다 35mm 길고 10mm 낮다. 푸조의 새로운 패밀리룩인 '캐츠 아이'를 308에 이어 적용했으며, 뒤로 갈수록 살짝 높아지는 '버블 루프'를 채택해 독특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실내는 동급 경쟁차에 없는 장비가 많다. 7인치 멀티미디어 스크린을 통해 라디오, 블루투스 등을 제어하는 'SMEG'이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된다. 뒤차의 헤드램프 불빛을 줄여주는 ECM 룸미러도 기본이며(QM3는 일반 룸미러), QM3에는 없는 커튼 에어백도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360ℓ이고, 뒷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1194ℓ까지 활용할 수 있다. 트렁크 양쪽 측면에 마련된 2개의 그물망과 트렁크 매트 아래 22ℓ 수납공간에는 자잘한 짐을 담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트렁크 바닥에는 다섯 개의 레일이 설치돼 적재물을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

1.6 e-HDi 디젤 엔진과 6단 전자제어 자동변속기를 조합한 2008은 최고출력 92마력, 최대토크 23.5kg·m를 낸다. QM3는 90마력, 22.4kg·m로 2008보다 파워가 약간 떨어진다. 2008은 도심 16.2km/ℓ, 고속도로 19.2km/ℓ, 복합 17.4km/ℓ의 표시연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해 동근태 상무는 "실제로 주행하면 20km/ℓ를 훌쩍 넘길 수 있어서 동급에서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차"라고 밝혔다.

푸조 2008의 가격은 악티브가 2650만원, 알뤼르 2950만원, 펠린은 3150만원이다. 르노삼성 QM3는 2250만~2450만원으로 2008보다 저렴하지만, 2008의 편의장비가 훨씬 많아 가격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평이다. 특히 파노라마 선루프와 파크 어시스트(주차 보조장치) 등은 동급 경쟁차에 없는 장비다.

한불모터스는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2008에 대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동근태 상무는 "내년부터는 2008 한 차종만 6000~7000대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 물량 확보를 위해 송승철 사장이 푸조 본사에서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임의택기자 ferrari5@

30대 공기업 학자금 돈잔치

한전 등 5년 간 4200억원 무상 지원

30대 공기업이 지난 5년간 4200억원의 학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공기업 직원은 1인당 학자금 무상지원으로 매년 평균 660만원을 챙겼다. 반면 이들 공기업은 최근 부채비율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30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9년 144%에서 2013년 199.1%로 55.1%포인트 높아졌다.

29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곳의 2009년~2013년 5년간 학자금 지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무상 지원액은 4203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이자로 빌려준 융자금까지 합칠 경우 학자금 지원액은 7400억원으로 치솟는다.

학자금 무상지원액이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5년간 1302억원을 지급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613억원으로 2위였고, 한국철도공사(389억원), 대한석탄공사(206억원), 한국도로공사(175억원), 한국중부발전(172억원), 한국마사회(162억원), 한국서부발전(140억원), 한국남동발전(136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126억원) 순이었다.

1인당 학자금 지원액은 5년 평균 234만원이었고, 2009년 200만원에서 2011년 231만원, 2012년 289만원, 지난해에는 299만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지원대상별로 대학교가 663만원으로 인당 평균 지원액이 가장 컸고, 어린이집·유치원(310만원)→대학원(290만 원)→고등학교(186만 원)→초등학교(130만원)→보육비(97만 원)→중학교(35만 원) 순이었다.

대학 학자금 무상지원액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5곳)가 특히 높았다. 한국동서발전이 1인당 평균 1400만원을 지원해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한국서부발전(2위. 935만원), 한국중부발전(3위. 901만원), 한국전력공사(5위. 788만원), 한국남동발전(6위. 752만원), 한국남부발전(7위. 740만원) 등으로 '톱10'에 들었다. /김태균기자 ksgit@

전자업계 '아날로그' 감성 바람

혁신 기술과 복고풍 디자인으로 차별화

글로벌 전자업계가 기술 경쟁을 넘어 아날로그 감성을 입힌 제품으로 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 복고풍 디자인의 제품, 아날로그적인 사용 경험을 접목한 제품 등 혁신적인 기술을 따뜻한 감성으로 전달해 차별화를 꾀하는 것이다.

LG전자의 클래식TV는 아날로그적인 디자인을 입힌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제품은 풀HD 화질의 LED TV면서도 과거의 TV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우측에는 예전 TV처럼 다이얼 버튼을 부착했고 아래쪽에는 V자 형태의 다리가 달려 있다. 또 측면에는 나무 재질로 포인트를 줘 가구 같은 느낌을 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이나 방 안에서 사용하는 세컨드TV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큰 인기에 힘입어 지난 8월에는 기존 32인치에 이어 42인치 제품도 내놨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폰에 펜이라는 아날로그적인 도구를 덧붙여 크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S펜은 필기 문화를 최신 모바일 기술로 구현한 것으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등 스마트폰을 노트처럼 사용하도록 돕는다. 회의나 수업 중 칠판 내용을 갤럭시 노트로 촬영한 후 S노트에서 본인의 스타일로 필기를 재정리해 디지털 파일로 저장·공유하는 등 S펜을 통해 스마트폰을 더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신제품인 '갤럭시 노트4'의 S펜은 기존보다 2배 향상된 2048단계의 정교한 필압으로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제공해 아날로그적 사용 경험을 배가시켰다.

한국후지필름이 29일 서울 올림픽로 롯데호텔에서 '이어앨범' 포토북 서비스 출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후지필름 제공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사진 촬영은 물론 SNS를 통해 주변사람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를 휴대폰이나 PC에 디지털 파일로 갖고 있으면서 다시 꺼내보지 않는 사람도 늘어났다. 이에 카메라 업체들은 사진을 인화해 나만의 앨범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포토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후지필름은 최근 더 간단하게 포토북을 만들 수 있는 '이어앨범' 서비스(사진)를 론칭했다. 이 서비스는 수백, 수천장의 보관된 사진을 5분 만에 화질, 선명도를 분석해 잘 나온 사진을 선택한다.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앨범에 넣고 싶은 인물의 사진을 선택하면, 선정된 주인공을 중심으로 사진 레이아웃이 자동 배치되는 '스마트 캐스팅' 기능도 갖췄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라인 프렌즈 스토어 대만서 대박

개점 첫주 2만명 몰려

라인 프렌즈 스토어 대만 매장에 개점 첫주 2만명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라인 프렌즈 스토어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캐릭터 상점이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지난 24일 대만 타이페이시 브리즈 센터에 문을 연 라인 프렌즈 스토어에 주말 동안 2만명 가까이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만의 라인 프렌즈 스토어는 라인의 해외 첫 매장이다.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과 제주도 신라면세점에 이은 세번째 정규 상점이기도 하다. 라인 프렌즈 스토어 대만 지점은 첫 해외 매장 오픈을 기념해 한정판 캐릭터를 판매했다.

앞서 라인 프렌즈 스토어 대만 지점은 정식 개점에 앞서 지난 18일과 19일 시범 영업을 진행했다. 라인 TV 광고에 출연했던 대만의 유명 여배우 계륜미가 직접 라인 프렌즈 스토어에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한편 라인은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의장이 추진한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에 밀려 업계 2위지만 남미와 동남아 등지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대만의 라인 이용자 수는 1700만명으로 이는 대만 전체 인구 2340만명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장윤희기자 unique@

대만 타이페이시 브리즈 센터에 문을 연 라인 프렌즈 스토어의 모습. /라인 제공

AKG-JBL, 이어폰·헤드셋 출시 2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만스토어에서 열린 오디오 브랜드 AKG와 JBL의 신제품 출시 기념행사에서 모델들이 JBL 이어폰 및 헤드셋, AKG 헤드셋을 소개하고 있다. /AKG-JBL 제공

상장사 여성 등기임원 한 명꼴

국내 상장사의 여성 등기임원 10명 가운데 8명은 지배주주 일가 출신으로 조사됐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여성 임원 비율이 2배나 높았다.

29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기업 694개사 가운데 여성 등기임원이 있는 기업은 11.2%인 78개사에 그쳤다.

여성 등기임원 수는 총 85명. 기업당 평균 1.08명이었고 두 명이 넘는 여성 임원을 보유한 회사는 없었다.

여성 등기임원 가운데 사내이사는 80.0%인 68명이었고 이중 지배주주 일가는 54명(79.4%)으로 집계됐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200개 상장사 가운데 총수가 있는 181개사의 경우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이 1.33%였던데 비해 그렇지 않은 19개사는 0.58%에 그쳤다.

/박성훈기자 zen@

좋은 기억,
오래오래 간직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

이제 **경증치매어르신**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1577-1000 | www.nhis.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❶ 기억을 유지하고!

❷ 일상생활 함께하고!

❸ 가족상담, 교육까지!

40만 가구 추가 수혜···주거안정 도움될까?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받으려면…

정부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내놓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대출요건 등을 완화해 1월 2일부터 시행하면서 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최근엔 정부가 대출 조건을 더욱 완화해 지난 10월 22일부터 시행하면서 약 4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봐 대출을 통해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부담을 덜어줘 그 동안의 전월세 설움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준다"는 의미의 '디딤돌 대출'에 대해 신청 자격과 함께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대출 대상

기본적으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000만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한다. 특히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디딤돌 대출은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지난 10월 22일부터는 주택 가격이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을 구하는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가격은 매매계약서 기준이란 점도 알아둬야 한다.

또 전용면적이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대분류인 도시지역(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대출금리와 한도

주택기금을 통해 공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반기별 2.6~3.4%)이 적용되어 인기가 높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가지로 나눠진다.

상환 방식은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나 원금 균등상환방식이다.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유의사항은 3년 이내 중도상환을 할 경우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대출만기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대출 금리는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각각 0.2%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중복적용은 안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우대금리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주택담보가치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즉 주택가격이 6억원 아파트라고 가정할 경우 담보가치의 70%를 적용한 4억이 넘는 대출은 받을 수 없고 2억원 밖에 대출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기타

전국에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전용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인 전체 아파트는 모두 562만7554가구로 알려졌다. 이 중 자신이 대출신청 자격이 되는지 등은 위에 언급한 조건들을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미혼 여성이 디딤돌 대출을 받았는데 결혼 할 남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2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선 결혼할 남성의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디딤돌 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된다.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포스코건설 친환경대전 총리 표창

포스코건설은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동반성장 지원과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또 친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 점을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누렸다.

환경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1~24일 나흘간 열렸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다인 246개 기업이 참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나흘간 열린 박람회에서 유기성 폐기물을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효율성이 입증된 '유기성 폐기물 연료화 기술'과 국내 최초 혐기소화 검증기술인 '혐기소화 바이오가스 기술' 등을 알리는 전시관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김두탁기자

녹색건축 한마당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녹색 건축 한마당'을 찾은 관람객들이 나선형 계단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 회장,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 도서 기증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중근(왼쪽) 부영그룹 회장이 자신의 편저서인 '6·25전쟁 1129일' 4500권을 29일 소방방재청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 기증했다.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요청으로 기증된 도서는 전국 민방위대원과 민방위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이 책은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바로알고 안보의식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영그룹 제공

3분기 전월세 거래량 급증

세종>대구>서울 순

올해 3분기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총 35만276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4.30% 증가했고 17개 시·도 중 8개 시·도가 증가율 두자리 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4만556건 15.14%, 지방은 11만2205건 12.55%가 증가했다.

29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역별 거래건수는 서울이 12만30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10만570건, 부산 1만9804건, 인천 1만9680건, 경남 1만3947건, 대구 1만1063건, 대전 9953건, 충남 9605건, 경북 7929건, 전북 6974건 등의 순이다.

지역별 증감률은 세종시가 171.90%로 가장 높았다. 대구 22.43%, 서울 19.82%, 전남 19.03%, 울산 18.05%, 전북 16.93%, 대전 16.37%, 부산 13.28% 등의 순을 나타냈다. 반면 인천과 제주는 각각 0.07%, 2.86% 감소했다.

3분기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대비 증가 했지만 분기별로는 2분기와 3분기 각각 전분기 대비 6.55%(36만2942건), 2.81%(35만2761건) 감소했다. 매년 분기별 거래량 중 3분기 거래량이 가장 적다었다. 그 이유는 장마와 여름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4분기에는 전월세 거래량이 3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전월세 거래량을 발표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분기 거래량이 가장 적었고 4분기 거래량은 3분기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올해 전월세 거래량은 4년래 처음으로 14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 1~9월 거래량은 110만4089건을 기록해 4분기에 29만5911건이 거래되면 140만 건이 된다.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3년 간 4분기 평균 거래량 33만2675건만 적용하더라도 140만 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한다.

/김두탁기자

제품 사면 기부가 저절로… '착한 소비' 호평

구매 때 일정 금액 난치병·장애인 돕기 등에 사용

최근 유통 업계에서 기부 상품, 공정무역 상품 등 착한 소비를 유도하는 상품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런 상품은 소비자에게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비자들로 단순 소비 형태가 아닌 의미 있는 구매 활동으로 호평을 받으며 관련 제품의 매출도 늘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가 상품의 제값을 그대로 주고 구매하지만 제조업체나 유통 업체에서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지난 1일 대학로점을 '커뮤니티 스토어' 매장으로 오픈했다. 글로벌 스타벅스 가운데 세계 여덟 번째, 아시아에선 두 번째 기부형 매장으로 문을 연 이곳에서 고객이 식·음료는 물론 텀블러 등 모든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300원씩을 적립하게 된다. 이 기금을 모아 올해 15명의 불우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일부 기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돼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오픈, 하이트진로음료-홈플러스의 '사랑샘물'(왼쪽부터). /각 사 제공

하이트진로음료는 제품 구매 때 일정 금액이 기부되는 '사랑 샘물'을 최근 선보였다. 홈플러스·굿지앤과 함께 백혈병 어린이를 위한 사회 공헌활동으로 기획한 제품이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게 되면 홈플러스의 사회 공헌 캠페인인 '생명의 쇼핑카트'를 통해 매출액의 1%가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의 수술비와 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선보인 '착한빵'은 2개가 팔리면 1개의 단팥빵을 아동 양육시설에 기부하는 개념으로 운영된다. 제품은 '쫀든쫀득녹차콩떡'과 '쿨녹차브레드' 2종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착한 소비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편의점 CU는 우리 땅 독도를 후원하는 'CU 독도 후원 교통카드'를 출시했다. 교통카드와 CU 멤버십 카드가 결합된 선불카드로 CU 매장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된 매출 이익금의 1%가 독도 후원 기금으로 적립된다. GS25는 판매금액의 1%를 기부하는 나눔 상품을 선정하고 이를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생산되는 과정에서 상생, 공정무역 등 사회에 공헌하는 과정을 거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있다.

애경은 장애인의 고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사업장 자립기반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애경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중증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형원에서 주방세제 '트리오 브라보'와 섬유 유연제 '아이린'을 생산하고 있다.

공정무역 전문 비영리 재단법인 아름다운 커피에서는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확보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코코아 함량을 높이고 합성첨가물은 넣지 않은 '이퀄 페루 코코아'와 '수마트라의 선물' 등은 공정무역 원료 100% 제품이다.

페루 나랑히요 조합의 소규모 농가와 쓰나미와 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공정무역 원료를 사용했다.

캐주얼 브랜드 행텐은 지난 10월 10일 자사가 정한 행텐데이를 맞아 이날을 도네이션 데이로 지정하고 1+1+1 이벤트를 벌였다. 고객들이 제품을 하나 구입했을 때 추가로 하나를 더 증정하고 나머지 하나는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되는 방식이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강강술래, "한우데이 기념 한우곰탕 1+1행사"

전 매장에서 곰탕 30%할인에 덤 증정까지
구이류 주문 양만큼 한우불고기 포장제공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한우데이(11월 1일)'를 맞아 축산농가를 응원하고 한우 소비 활성화를 위해 11월 14일까지 다채로운 이벤트를 벌인다.

전 매장에서 가정간편식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선물세트(800㎖·5팩·15인분)를 30%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하며, 구매 때 소용량선물세트(350㎖·5팩·10인분·2만2500원)를 덤으로 준다.

상계·신림·홍대·시흥·늘봄농원점에서는 소고기 구이메뉴를 주문하면 한우불고기 포장상품을

주문한 만큼 무료로 증정한다.(해피아워·정식류 제외, 신림·시흥점은 주 중에만 행사 진행)

또 행사기간 매장에서 산타리타 히어로 카버네쇼비뇽 와인 1병을 주문하면 결제 때 산타리타 히어로 멜롯 와인 1병도 선물로 준다.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선 100% 한우갈빗살만을 사용한 칠첩한우떡갈비(360g×3팩·4만2000원)와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나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3팩·2만5200원)도 30% 할인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조선정화靑畵, 푸른빛에 물들다' 특별전 티켓과 여드름과 아토피성 피부질환에 뛰어난 효능을 지닌 엠플러스케어 게르마늄 비누세트(9만원)를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반값' 활광어회 28일 오전 이마트 성수점 수산코너에서 최성재 이마트 식품본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방지성 제주도 부지사(왼쪽에서 세번째)가 참석한 가운데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마트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일주일간 제주 활광어회를 기존보다 50% 저렴한 1만6800원(430g 내외·팩)에 판매한다. /이마트 제공

"여야정 협의체 구성 검토 약속 받아"

FTA국회비준반대 비대위, 국회방문 투쟁 전개

축산단체장들이 단식농성을 시작한 5일차인 지난 27일 FTA국회비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장호 축단협 회장)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축산단체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릴레이 회의를 개최하고 축산인의 요구 사항에 제대로 된 답변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성토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로 '축산업 회생을 위한 9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30일까지 납득할 수준의 답변이 없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초강경 대응할 것임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리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장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우남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축산업의 중장기적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겠다"며 "국회 역할은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비대위 측은 설명했다. /정영일기자

(왼쪽부터) 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 한국사슴협회 정유환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오리협회) 이창호 회장, 전국한우협회 이강우 회장, 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 한국육계협회 박상연 부회장. /FTA국회비준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가구업계, 지방 공략… '대형화' 승부수

이케아 공습 맞서기…"소품부터 레스토랑까지"

오는 12월 이케아 광명점이 문을 여는 가운데, 국내 가구 업계가 지방에 대형 매장을 잇따라 오픈하며 채비를 단단히 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영업망을 구축해 왔지만 지방에도 가구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매장을 열어 인테리어 소품부터 다양한 라인의 상품을 구축하고 있다.

이달 까사미아는 구미에 경북지역 최대 규모의 대리점(사진)을 신규 오픈했다. 약 1350㎡ 규모로 전국 대리점 중 두 번째로 큰 매장이다.

규모가 큰 만큼 '데일리까사미아' '까사블랑' '시타디자인' 등 대

부분의 브랜드들이 입점했고, 키즈 브랜드도 전 제품이 들어와있다. 특히 일부 직영점에서만 운영 중인 레스토랑 '까사밀'을 대리점 최초로 도입했다.

까사미아 관계자는 "토털 인테리어 매장은 단순한 쇼핑공간을 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대리점 최초로 레스토랑을 입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울산점을 리뉴얼해 열었다. 이 매장은 3층으로 구성됐으며 운영하는 대리점 중 가장 큰 규모다.

체리쉬는 지난 7월, 600평 규모의 대구직영점을 새롭게 열었다. 운영 중인 7개 직영점 중 가장 많은 종류의 소품이 구비된 매장이다. 섬유산업이 발달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패브릭류 라인업을 확장하고 커튼존과 침구존을 새롭게 조성했다.

현대리바트도 최근 광주와 대전에 각각 1200㎡ 이상 대형 매장을 연이어 오픈했다. 가정용 가구와 홈스타일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리바트키즈를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였다. /김수정기자 ksj0215@

주말마다 서울역서 10회 왕복… 무의도 등 인기

코레일공항철도가 운영하는 서해바다 열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바다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열차 이용이다. 다음 달 30일까지 주말마다 운행되는 열차로 원래 종착지인 인천공항역을 지나 수도권 최고의 섬 산행지로 유명한 무의도가 코앞에 보이는 용유임시역까지 이어진다. 무의도는 물론 인근의 을왕리 등 용유바다 여행지로의 여행이 그만큼 쉬워진 셈이다.

실제로 이런 편리성 때문에 열차 이용객은 하루 1000명을 웃돌고 있으며 가을에 들어서면서 열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더욱 붐비는 상황이다.

특히 가을이면 하얀 억새꽃이 만발하는 무의도에는 호룡곡산과 국사봉이 있어 가을 낭만여행도 가능하며 무의도에서 소무의도(사진)에 이르는 무의바다누리길과 하나개해변, 실미해변 등은 가을 바다의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또 용유임시역 주변에는 먹거리 타운이 자리하고 있으며 일몰이 유명한 거잠포와 갯벌 체험장이 있는 마시란해변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다.

열차는 매주 주말 서울역에서 출발하며 하루 10회 왕복 운행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

"요즘은 놀아주는 아빠가 대세"

'플래디' 열풍… 유아용품 공략 제품 쏟아져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플래디(Play+Daddy)'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유아용품 업계에서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아빠들의 소비심리를 공략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 아빠들이 유모차를 끄는 것이 낯선 풍경으로 인식됐던 국내에서도 '플래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제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야외 활동에 참여하며 자녀와 교감을 시도하는 것이 트렌드다"고 말했다.

순성산업이 출시한 '비플래디'는 앞 좌석 백시트에 장착할 수 있는데 육아용품을 편리하고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부의 투명 케이스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거치할 수 있어, 카시트 착용이 낯선 아이들에게 동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스트랩을 조절하면 멀티 백팩(사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인스텝에서 내놓은 자전거 트레일러는 최근 예능프로그램에서 연예인 송일국이 세 쌍둥이를 태워 '송국 열차'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자전거 뒤에 장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아이와 함께 라이딩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플래디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다. 안전벨트가 있어 넘어져도 안심할 수 있다.

가족 캠핑족이 확산되면서 유아용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리틀라이프가 선보인 유아 캐리어는 트래킹을 즐기는 아빠들이 아이와 야외 활동을 할 때 함께 걸으며 같은 눈높이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식을 줄 모르는 국민 남녀 배우의 인기 우아한 아름다움의 대명사 배우 '이영애'(사진 왼쪽)가 미세전류 백금 롤러 '리파(ReFa)'의 모델이 됐다. 리파의 공식 에이전시인 '코리아테크'는 최근 리파의 전속 모델로 배우 이영애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탈리안 스포츠 브랜드 '휠라(FILA)'는 29일 일명 '김수현(오른쪽) 다운'으로 불리며 특허받은 발열 구스다운(거위털)을 사용해 보온성을 극대화하고 스키복 기능을 접목해 일상복뿐만 아니라 스키복으로도 착용 가능한 하이브리드형 제품인 '야누스 다운재킷'을 내놨다고 밝혔다.

/정영일기자

"단풍놀이 전 신발 밑창부터 확인"

야외활동의 계절… 아웃도어 슈즈 관리 팁

가을을 맞아 단풍놀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웃도어 슈즈 관리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슈즈 멀티 스토어 슈마커 관계자는 "비싼 기능성 신발의 경우 나들이 떠나기 전은 물론 다녀와서도 제대로 관리해야 오래 신을 수 있다"며 아웃도어 비포 앤 애프터 관리 팁을 소개했다.

본격적인 산행·트레킹에 앞서 서는 밑장(아웃솔) 상태부터 확인해야 한다.

아웃도어 신발 밑창은 보통 1주일 1회 산행(평균 4~6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2년마다 교체하는 게 좋다. 하지만 평소 안짱다리·팔자걸음 등 보행 습관 탓에 밑창의 편 마모가 심하거나 밑창이 닳아 중창 부분이 살짝 보이면 바로 수선을 해야 한다.

또한 가을 산행에서는 비나 이른 눈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전 신발에 방수제를 뿌려준다. 또한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방수제를 뿌려주면 신발 고유의 기능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

산행 후에는 등산로 입구에 설치돼 있는 에어브러시로 흙과 먼지 등을 털고, 부드러운 천으로 오물을 제거한다. 더러움이 심할 때에는 전용세제를 사용해 닦아내는 게 좋다. 소재에 따라 미지근한 물로만, 또는 중성세제·전용크리너 등을 활용해 세탁할 수 있다.

슈마커광고판촉팀 윤희중 과장은 "고가의 기능성 아웃도어 슈즈를 햇볕에 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이는 잘못된방법"이라며 "가죽 소재의 경우 뒤틀려 변형될 수 있고 밑창의 고무 부분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발은 반드시 그늘에서 말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용 케어 제품을 활용하면 신발 수명을 늘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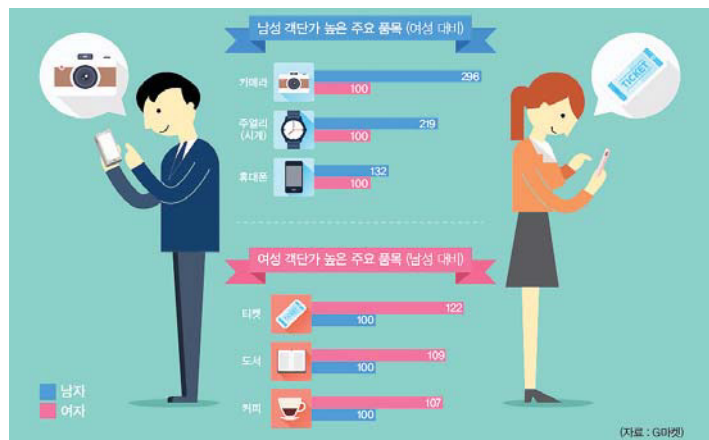
슈마커에서 판매 중인 불스원의 '신발 방수제'는 뿌리기만 해도 신발이나 섬유에 방수 보호막을 형성해 눈과 비에 젖지 않게 해준다. 불스원의 '신발냄새싹 스프레이'는 은이온과 카테킨 성분을 함유해 신발 바닥에 뿌리고 2분 정도 말리면 냄새는 물론 세균까지 제거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

G마켓 "남성은 카메라, 여성은 티켓 구매 선호"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여성보다 남성의 씀씀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이 올해(1월 1일~10월 26일) 품목별 판매 건수에 따른 남녀 평균 구매 금액(객단가)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품목에서 남성의 평균 구매 금액이 여성보다 높게 조사됐다.

특히 카메라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객단가 차이가 3배(196%) 가까이 났다. 모니터·프린터와 휴대폰 관련 품목은 남성의 객단가가 각각 51%·32% 더 높았다.

주얼리·시계 품목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 이상(119%) 평균 구매 금액이 컸다. 가방과 패션도 22% 높은 객단가를 보였으며, e쿠폰(35%)·골프용품(34%)의 남성 객단가가 여성보다 30%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여성은 티켓·도서·커피 등 일부 품목에서 씀씀이가 컸다.

티켓의 경우 남성보다 22% 지출 금액이 높았다. 이 외에 가구(16%), 도서·음반(9%), 커피·음료(7%) 등에 여성이 돈을 더 많이 지출했다.

강선화 마케팅실 실장은 "남성은 보통 카메라나 전자제품 등에 많은 지출을 하는 편이고 최근 들어 꾸미는 남성 트렌드로 인해 주얼리 제품군도 남성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며 "티켓·도서·커피 등 이른바 문화 소비와 관련 있는 품목에서는 여성들이 남성 보다 지갑을 여는데 관대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생활체육 트레킹학교 인기

최근 국내에서 붐이 일고 있는 '트레킹'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국민생활체육 트레킹학교가 인기다.

국민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전국등산연합회가 주관하는 트레킹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신명 나는 트레킹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 트레킹학교 관계자는 "날로 늘어나는 등산인구에 비해 관련 문화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산행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걷기에도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레킹은 가벼운 운동이지만 무분별하게 할 경우 관절과 근육 등에 무리가 가는 등 부상 할 수 있다.

국민생활체육 트레킹학교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12월까지 주말마다 안전 교육을 중심으로 한 트레킹 교육을 실시한다.

트레킹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 강사팀은 등산 관련 자격증·응급처치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올바른 장비 사용법·호흡법·보행법·응급처치와 같은 트레킹 기초 이론과 실기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역사 교육을 함께해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교육은 문경새재·소리산·계룡산·청계산·북한산·도봉산·아차산 등 서울 10개소와 지방 5개소 등 총 15곳에서 진행된다.

국민생활체육 트레킹학교 관계자는 "최근 트레킹이 인기를 끌면서 회사·학교·청소년 시설에서 운동이 부족한 직장인과 청소년 등 단체 접수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문의: www.sportal-edu.or.kr·02-2272-2744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가을 독서 바른 자세 중요

잘못된 습관 척추질환 불러… 스트레칭 필수

가을을 맞아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제법 눈에 띈다. 하지만 다리를 꼬고 앉거나 턱을 괴는 등 잘못된 독서 자세는 건강에 치명적이다. 목이나 척추 등 관절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엎드려서 책을 읽으면 허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척추 근육을 긴장시켜 허리를 비롯한 전신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리를 꼬는 자세는 넓적다리의 높이가 달라져 골반이 삐뚤어지는 원인이 되면서 체형의 변화까지 유발한다. 턱을 괴는 습관 역시 목뼈가 비틀어지는 경추부 염좌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종이책을 대신하는 전자책 역시 마찬가지다. 종이책보다 긴장해서 다루고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 손목에 부담이 되기도 하며 이것이 지속되면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무릎 위에 전자기기를 놓고 머리를 푹 숙이고 화면을 바라보는 자세가 반복되면 거북목이 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책을 읽으면서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허리를 상체 등받이에 충분히 기대 책을 보는 것이 좋으며 시선이 15도 정도 아래를 향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조절하는 독서대나 거치대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황재용기자

면접때 발음 입시 성패 가른다

정확한 메시지 전달 위한 연습 필요

예전과 달리 지금의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공부만으로 입시 준비가 끝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와 논술 등 대학의 문턱을 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 1박 2일이나 토론 등의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면접 평가는 합격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면접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부분도 알차게 준비해야 하지만 자신의 발음이 어떤지 확인하고 실제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발음이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가졌어도 부정확한 발음을 낸다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거나 신뢰를 얻는데 한계가 있고 지나치게 부정확한 발음은 입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부정확한 발음을 내는 학생이라면 정확한 혀 사용법을 익히고 발성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발음을 교정할 수 있다. 혀를 지나치게 짧게 사용하면 'ㄹ'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혀 짧은 소리가 나고 길게 사용하면 'ㅅ' 발음을 낼 때 번데기(th) 소리가 난다. 따라서 정확한 조음점을 찾아 혀를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발성습관도 중요하다. 강한 발성으로 소리를 내면 혀가 긴장한 상태가 되면서 혀끝이 약간 올라가게 되고 이와 반대로 낮고 작은 소리의 발성이 되면 혀끝이 내려간다.

아울러 짧은 시간 동안 개선을 원하거나 부정확한 발음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이비인후과 검진을 통해 언어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언어치료사와 함께 훈련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인 발성훈련을 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안철민 음성언어치료 전문 프라나이비인후과 원장은 "전문적인 치료와 더불어 의식적으로라도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으며 신문이나 책을 소리 내면서 읽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미즈메디병원, 소방서 연계 모의 소방훈련 미즈메디병원(원장 김태윤)이 지난 29일 강서소방서와 함께 긴급 화재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모의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건물 지하 1층 수술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병원 자위 소방대가 초기 대응에 나섰으며 분만실과 신생아실의 산모와 아기도 신속히 이송됐다.

이대목동병원 '환자 안전의 날' 행사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이 지난 28일 병원 김옥길홀에서 모든 임직원이 환자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지는 '제5회 환자 안전의 날' 행사를 열었다.

먼저 병원 로비에서는 환자 안전 포스터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의 전시회가 마련됐다.

또 유권 병원장을 비롯해 김영주 교육연구부장과 정순섭 QPS센터장 등이 전 병동을 순회하며 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 캠페인과 표준약어 홍보 활동을 펼쳤다.

기념 행사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안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자 안전 특강'이 열렸고 안전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됐다.

유 원장은 "환자 안전이 병원 경영의 최우선"이라며 "이번 행사가 환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특별한 품격의 점심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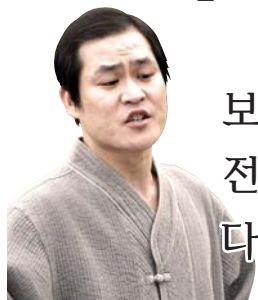
르네상스 서울 호텔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직장인들의 점심 또는 모임에 특별함을 선사하고자 호텔 내 4개 레스토랑에서 '데일리 런치 스페셜 메뉴'를 선보인다.

4개 레스토랑은 ▲스테이크 하우스 맨해튼 그릴 ▲중식당 가빈 ▲일식당 이로도리 ▲한식당 사비루 등이며 프로모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진다.

또 메뉴는 각 레스토랑의 특색에 맞는 총 5코스의 요리로 준비되며 그동안 호텔에서 가장 인기있는 메뉴만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황재용기자

"꾸준하게 오래 가는 배우 될래요"

보편적인 감성에 끌린 첫 주연작품
전작들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연기
다양한 작품 제안 "행복한 시기죠"

첫 등장은 무서웠다. 말없이 존재감을 발휘하던 건달과 이웃에 사는 의문의 살인마는 스크린을 압도하는 강력함이 있었다. 하지만 마냥 세고 무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거칠어 보이는 얼굴 뒤에는 편안한 유머와 자상함이 숨겨져 있었다. 배우 김성균(34)의 이야기다.

지난 23일 개봉한 영화 '우리는 형제입니다'는 최근 몇 년 사이 충무로에서 가장 바쁘게 활동 중인 배우 조진웅, 김성균이 공동으로 주연을 맡은 영화다. 장진 감독이 오랜만에 연출한 코미디로 30년 만에 목사와 박수무당으로 다시 만나게 된 형제가 실종된 어머니를 찾기 위해 벌이는 소동을 그렸다.

개봉 이후 첫 주말을 보낸 뒤 만난 김성균은 "영화 한 편을 내놓는 것이 장난이 아니더라"며 첫 주연작에 대한 압박과 무게감을 드러냈다. "김성균을 주연으로 써도 되는지 판가름 나는 첫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받고 출연을 결심하기까지는 첫 주연이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모성애, 그리고 형제애 코드가 좋았어요. 보편적인 감성이니까요. 그 동안 제가 했던 영화들은 살인마처럼 보편적이지 않은 감정들이 많았잖아요. 이맘때쯤 이런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참에 시나리오를 받았죠."

연극배우 시절 동경했던 장진 감독과의 작업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감독님과 친분은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의 일방적인 관계였죠(웃음). 마산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할 때 장진 감독님이 각본을 쓴 '택시 드리벌' 공연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김성균은 장진 감독을 "머리에 솜사탕 기계가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아이디어가 끊임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형제입니다'는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했던 전작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연기했다. 인물 내면보다는 상연(조진웅)과 하연(김성균) 두 형제의 상반된 캐릭터가 빚어내는 충돌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전작들은 내면도 황폐하고 머릿속이 뿌연 담배연기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캐릭터였죠(웃음). 하지만 이번 영화는 골머리를 썩이지 않아도 되는 캐릭터라 좋았어요. 하나의 캐릭터만 확실하게 가져가면 되니까요. 하연은 그냥 세월에 의해 조금 까칠한 성격을 갖게 된 인물이라고 이해했어요."

다만 고민이 된 것은 하연이 말이 많은 인물이라는 점이었다. 너무 시끄러운 캐릭터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였다. "'절제의 미' 같은 게 없죠(웃음). 후시 녹음하면서 하연의 말투나 대사 표현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해볼까 고민도 했어요. 감독님 주문대로 지금처럼 하기는 했지만 사실 무엇이 더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고민에 대한 해답은 연극배우 출신 아내의 조언에 있었다. "평소에도 아내랑 같이 대사를 맞춰보고 의견도 많이 물어봐요. 연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이번에도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이에요."

김성균이 '우리는 가족입니다'처럼 따뜻함을 담은 가족 코미디에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영향이다. '응답하라 1994'의 '포블리' 삼천포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뒤로는 이전보다 더 다양한 장르의 시나리오를 받고 있다. "예전에는 그냥 '센캐(센 캐릭터라는 뜻)'만 들어왔죠. 지금은 진짜 다양한 작품들의 시나리오를 골고루 받고 있어요. 배우로서 정말 행복한 시기죠."

김성균의 바쁜 행보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살인의뢰'와 '허삼관'(가제)의 촬영을 마쳤고 현재는 '여름에 내리는 눈'을 촬영 중이다. 그리고 '명탐정 홍길동'(가제)의 촬영도 앞두고 있다. 연극에서 영화로 무대를 옮긴지 어느 덧 3년. 김성균은 이제 한국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배우다.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문득 문득 일상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해요. 몽환적이라고 할까요? (웃음) 우리 같은 배우들은 찾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저의 꿈은 한류스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처럼 요란스럽지 않고 꾸준하게, 그리고 적당하게 오래 배우를 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한준희(라운드테이블) 디자인/김아람

'우리는 형제입니다' 첫 주연 맡은 김성균

그래도
살만한
인생
tvN 8주년 특별기획
미생
未生
임시완 | 이성민 | 강소라 | 강하늘 | 김대명 | 변요한 | 신은정 그리고 이경영
기획 tvN 제작 N°3 NUMBERTHREE PICTURES
매주 [금토] 저녁 8시 30분 tvN 방송

검사 vs 기자…12월 안방 '시선 잡기'

월화극 '펀치'·'힐러', 묵직한 메시지 던져 관심

2014년은 검사와 기자의 대결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SBS는 '펀치', KBS는 '힐러'를 12월 월화드라마로 확정했다.

'펀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 박정환 검사의 생애 마지막 6개월을 기록하는 드라마다.

'추적자'·'황금의 제국'을 집필한 박경수 작가의 신작이다. 박 작가는 앞선 두 작품에서 돈과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시대의 민낯을 드러내는 묵직한 필력으로 안방 시청자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펀치'를 통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질 지 기대가 높은 상태다.

앞서 남자 주인공 박정환 역에 배우 김래원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펀치'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김래원은 거론되고 있는 배우 가운데 한 명"이라며 "캐스팅 막바지 단계다.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환 역은 정의와 비리가 공존하는 법조계에서 사회적인 화두를 던질 예정이다. 현재 '펀치'는 검찰총장 이태준 역에 조재현, 법무부 장관 윤지숙 역에 최명길이 출연을 확정한 상태다. '비밀의 문 (의궤살인사건)' 후속작으로 12월 15일 첫 방송된다.

'펀치'가 검사를 주축으로 한다면 '힐러'는 기자의 이야기를 담는다. 작품은 이미 제작을 시작했다. 지창욱·유지태·박민영을 비롯해 박상원·도지원·박상면 등 명품 중견 배우들의 조화가 눈에 띈다.

'힐러'는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업계 최고 심부름꾼 서정후(지창욱)가 '똘끼' 있는 인터넷 기자 채영신(박민영), 미스터리한 비밀을 간직한 스타 기자 김문호(유지태)와 엮이면서 기자로 성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세 명은 과거와 현재의 어떤 진실을 파헤치며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한다.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를 집필한 송지나 작가, 최고 시청률 50.8%를 기록했던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이정섭 감독이 함께 해 하반기 최고 기대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일도 칸타빌레' 후속으로 12월 초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KBS2 새 월화극 '힐러'의 지창욱·박민영·유지태(왼쪽부터). /㈜김종학프로덕션 제공

김광진·김조한 나윤권 지원 사격

단독 공연에 게스트 출연

가수 김광진(사진 왼쪽)과 김조한(오른쪽)이 후배 가수 나윤권의 단독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한다.

나윤권의 소속사 케이튠이앤엠코리아는 다음 달에 열리는 나윤권의 단독 콘서트 '재회'에 선배 가수 김광진과 김조한이 게스트로 출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나윤권이 지난 9월 소집해제 후 약 2년 만에 갖는 단독 콘서트다. 소속사는 "김광진·김조한이 후배 나윤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줬다"며 "감성 보컬들로 채워질 이번 콘서트에 대해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나윤권은 지난 13일 새 싱글 '이프 온리'를 발표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신곡을 비롯해 히트곡 '나였으면' '기대'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나윤권의 단독 공연은 다음달 8~9일 이틀 동안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다.

/김지민기자 langkim@

한지민, 현빈과 두 가지 ♥

드라마 '지킬과 나' 출연 확정…2년 만에 안방에

배우 한지민(사진)이 현빈과 재회한다.

한지민은 내년 1월 방송 예정인 SBS 수목극 '지킬과 나(가제)'에 출연한다. 2012년 '옥탑방 왕세자' 이후 약 2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하는 것이다.

'지킬과 나'는 인기 웹툰 '지킬 박사는 하이드씨'가 원작이다. 배우 현빈이 전역 후 처음 선택한 드라마로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된 바 있다.

한지민은 작품에서 이중 인격자 구서진(현빈)이 상무로 있는 테마파크 원더랜드의 서커스 단장이자 간판 배우 장하나 역을 맡는다. 있으나마나 한 서커스단을 내쫓으려는 구서진에 맞서는 인물이다.

특히 구서진 내면에 있는 까칠남 지킬과 순정남 하이드 두 남자를 조련할 예정이다. 한지민이 두 남자 사이에서 극의 균형과 긴장감을 어떻게 유지할 지 기대가 높다.

'지킬과 나'는 한 남자의 전혀 다른 두 인격과 사랑에 빠진 여자의 삼각 로맨스를 다룬 로맨틱코미디다. 드라마 '49일' '야왕' '잘 키운 딸 하나'를 연출한 조영광 감독, '청담동 앨리스' 김지운, '선덕여왕'·'뿌리깊은 나무'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함께 했다. /전효진기자

'제2의 노라존스' 프리실라 안 내한

브로콜리너마저 윤덕원, 빅포니와 공동 무대

여성 싱어송라이터 프리실라 안(사진)이 한국을 찾는다.

'제 2의 노라 존스'라 불리며 블루 노트를 통해 데뷔한 프리실라 안은 오는 12월 5일 서울 마포구 KT&G상상마당에서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

감성적이고 포근한 목소리의 프리실라 안은 피아노·기타·하모니카 등 여러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멀티 인스트루멘틀리스트다. 이미 한 차례 내한 공연을 개최했으며 두 번의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한 바 있다.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프리실라 안은 어린 시절 동양 혼혈이란 이유로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음악을 배우며 외로움을 치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서정적인 포크 팝 사운드의 데뷔앨범 '어 굿 데이'와 과감한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돋보이는 '디스 이즈 웨어 위 아'의 수록곡을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 내한 공연에서는 '아리랑'과 신중현의 '싫어' 등을 부르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이번 공연에서 프리실라 안은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리더 윤덕원과 재미교포 싱어송라이터 빅 포니와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한편 프리실라 안의 내한 공연 티켓은 다음달 4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예매할 수 있다. /김지민기자

이정재·황정민 '브라더'에서 흥행 맞수로

'빅매치' '국제시장'으로 12월 극장가 격돌

영화 '신세계'에서 '브라더'로 호흡을 맞춘 배우 이정재, 황정민이 '빅매치'와 '국제시장'으로 오는 12월 극장가에서 격돌한다.

이정재는 2012년 13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도둑들'을 시작으로 2013년 '신세계'(468만)와 '관상'(913만)까지 연타석 흥행을 기록하며 흥행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능청스러운 도둑부터 정체를 숨기고 범죄조직에 잠입한 경찰,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왕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관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신작 '빅매치'에서는 생애 첫 액션 연기에 도전한다. '빅매치'는 악당으로부터 형을 구하려는 익호(이정재)가 도심 전체를 무대로 펼치는 무한질주를 그린 오락액션 영화다. 이정재를 비롯해 신하균, 이성민, 보아, 김의성 등이 출연한다.

이번 영화에서 이정재는 서울 도심 곳곳을 누비며 몸을 아끼지 않는 액션을 펼쳤다. 박정률 무술감독은 "이정재는 무술과 기초 체력 운동뿐만 아니라 근육 트레이닝까지 따로 받을 정도로 열정이 많았다. 항상 파스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밝혔다. 최호 감독도 "이정재는 자신만의 유연한 감각으로 익호 캐릭터를 생생하고 세련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연기한 자성을 동생처럼 챙기는 조직의 '브라더' 정청 역으로 열연한 황정민은 '국제시장'으로 12월 극장가를 찾는다. 그 동안 황정민은 '너는 내 운명' '부당거래' '댄싱퀸' '신세계' 등 멜로·스릴러·코미디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믿고 보는 배우'로 인정받았다.

영화 '빅매치'의 이정재(왼쪽)와 '국제시장'의 황정민. /NEW·CJ엔터테인먼트

신작 '국제시장'은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이 5년 만에 연출한 작품으로 관심이 높다.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온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작품이다. 황정민은 오직 가족만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아버지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 덕수를 연기했다. 진정성 있는 연기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윤제균 감독은 "'국제시장'은 처음부터 황정민을 떠올리며 기획한 작품이다. 아버지의 진정성을 고스란히 전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황정민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위해 삶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아버지이자 아들이며 남자인 덕수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밝혔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영화 '나를 찾아줘'의 로자먼드 파이크. /이십세기폭스코리아

'나를 찾아줘' 에이미는 누구?

英 배우 로자먼드 파이크 열연 호평

데이빗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가 비수기 극장가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여자주인공 에이미를 연기한 배우 로자먼드 파이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로자먼드 파이크는 영국 런던 출신 배우로 2002년 '007 어나더 데이'로 데뷔했다. 이후 '오만과 편견' '타이탄의 분노' '잭 리처'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강렬한 액션부터 우아한 로맨스까지 다양한 연기를 보여줬다. 2013년에는 '잭 리처'로 톰 크루즈와 함께 한국을 찾기도 했다.

'나를 찾아줘'에서 로자먼드 파이크는 결혼기념일 5주년이 되는 날 갑자기 사라지는 아내 에이미 역으로 인생 최고의 열연을 펼쳤다. 극중 에이미는 국민적인 인기를 모은 동화 '어메이징 에이미'의 모델인 인물이다.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던 에이미는 이상형과도 같았던 남자 닉(벤 에플렉)을 만나 결혼에 골인하지만 서서히 찾아오는 권태기로 고뇌하게 된다.

로자먼드 파이크는 에이미의 복잡한 내면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며 강렬한 존재감을 남겼다. 해외 언론도 극찬했다. 인디와이어, 월스트리트 저널, 더 랩 등 해외 유수 매체들은 "경이롭다" "생애 최고의 역할" 등의 표현으로 그의 연기를 평가했다. 내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여우주연상 유력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장병호기자

정우성, 난민과 따뜻한 교류

유엔난민기구 명예사절로 다음달 네팔 방문

유엔난민기구 명예사절로 활동 중인 배우 정우성(사진)이 한국을 대표해 난민과의 따뜻한 교류에 나선다.

정우성은 지난 5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첫 연예인 명예사절로 임명됐다. 다음달 3일에는 한국대표부의 더크 헤베커 대표, 사진작가 조세현 등과 함께 네팔 다막 지역에 위치한 난민촌과 수도 카트만두의 난민 가정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우성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아왔던 난민촌을 직접 방문하게 돼 설렘과 두려움이 앞선다"며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체감한 뒤 더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무다. 현장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돌아오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네팔 지역 난민과 정우성의 만남은 조세현 작가의 카메라에 담겨 내년 6월로 예정된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사진전과 유엔난민기구의 다양한 홍보와 모금 활동에 사용된다.

/장병호기자

신선 되는 지름길, 버섯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세상에는 1만 4000종의 버섯이 있다. 대부분 독버섯이고 식용은 100가지 남짓으로 우리는 그중 20여종을 먹는다. 버섯 중에는 어느 버섯이 제일 맛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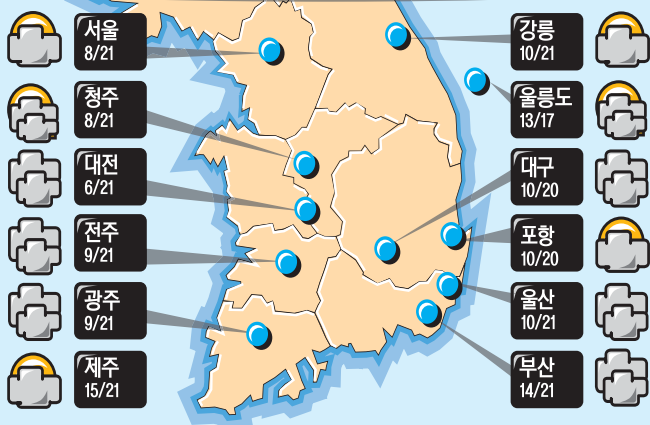
같은 버섯도 나라와 민족에 따라 선호도가 확 달라지는데 우리와 일본은 예전부터 단연 송이버섯이다. 고려 때 시인 이규보는 신선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송이버섯을 먹는 것이라고 노래할 정도로 송이 사랑이 지극했다. 그렇지 않아도 조상들은 송이를 하늘의 식품, 신선의 음식으로 여겼으니 송이가 자라는 곳은 시집간 딸에게도 안 가르쳐준다고 했을 정도다.

우리에게는 향긋한 송이버섯 향기가 서양인에게는 또 다르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심지어 군인 양말 냄새가 난다고 했을 정도니 송이버섯의 옛 라틴어 학명이 악취 나는 버섯이라는 뜻이었다.

중국인은 송이보다 표고버섯을 최고로 여긴다. 중국어로 표고버섯이 아예 버섯을 뜻하는 보통 명사다. 표고를 버섯의 황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황제는 어떤 버섯일까?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진시황이 먹었다는 영지버섯이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싶다. 진시황은 영원히 살겠다며 서복(徐福)을 시켜 불로초를 구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불로초를 못 구한 서복이 빈손으로 돌아갔을 리가 없다. 대신 신선이 먹는 음식이라며 가져 간 것이 영지버섯이다.

서양에는 진짜 황제버섯이 있다. 로마황제가 좋아했다고 해서 황제를 뜻하는 카이사르 버섯인데 우리한테는 계란버섯으로도 알려져 있다. 네로의 양아버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먹고 신이 됐다는 버섯이지만 실상은 네로와 어머니가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으로 독살해 놓고 죽은 것이 아니라 신이 됐다고 우겼다.

하지만 서양인에서 진짜 귀하게 여기는 버섯은 송로버섯(Truffle)이다. 푸아그라, 캐비아와 함께 유럽의 3대 진미로 꼽힌다.

지역마다 좋아하는 버섯이 다 다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버섯 먹으면 신이 된다는 것이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9			
	9	6				7		
5	1				2		6	
1			7			8		
	4		5		3		9	
		9			8			3
	8		4				7	1
		5				6	8	
			9				2	

	9							
			4		2			9
		1	3	9			8	
6			7				5	1
		8		1		9		
2	1				6			7
	6			7	8	5		
1			6		9			
							2	

스도쿠 정답

3	2	4	6	7	9	5	1	8
8	9	6	1	4	5	7	3	2
5	1	7	8	3	2	4	6	9
1	3	2	7	9	4	8	5	6
6	4	8	5	1	3	2	9	7
7	5	9	2	6	8	1	4	3
2	8	3	4	5	6	9	7	1
9	7	5	3	2	1	6	8	4
4	6	1	9	8	7	3	2	5

5	9	3	8	6	1	4	7	2
8	7	6	4	5	2	3	1	9
4	2	1	3	9	7	6	8	5
6	3	9	7	8	4	2	5	1
7	4	8	2	1	5	9	6	3
2	1	5	9	3	6	8	4	7
3	6	2	1	7	8	5	9	4
1	5	4	6	2	9	7	3	8
9	8	7	5	4	3	1	2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5년째 호프집, 장사가 너무 안풀려
어려움은 잠시…사업 적성에 맞아요

Q

zkvpemahd 여자 65년 10월 26일 음력 오후 4시

평소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호프집을 하는데 한 장소에서 5년이 넘었습니다. 불경기라 해도 9월 들어 오면서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8월 중순에 상갓집에 다녀왔는데 그 후부터 손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상갓집에 다녀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 집의 기운이 다 없어져서 그런가요? 65년생 여자입니다. 생일은 10월 26일이며 오후 4시에 태어났습니다. 고언 부탁드립니다.

A 사주 상담시 상문 조객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회적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많은 신경을 쓰며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로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지를 다져야하는 연유가 발생되고 꼭 참석하지 않아도 돼야 할 일에도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가리지 않고 자리에 참석함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상문 조객이 따라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적이라든지 또는 민간비법이라도 하고 조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장례식장 뿐만 아니라 환갑잔치라든지 돌잔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예기치 않게 우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사음식을 먹지 않고 굿 음식 이라든지 고사 음식등 인사 받은 음식은 모두 먹지 않는 사람도 있어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하지요. 부득이 참석했을 때는 액을 면하는 방법을 강구 하는데 요즘 이런 것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병명도 모르는 병을 앓고 이유 없이 죽기도 합니다. 생일지(生日支)를 기준으로 볼 때 귀하는 상문 조객 살이 없으므로 8월에 문상 갔다 온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운에서 잠시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당장은 어려움이 있어도 10월을 기약하고 올해 12월부터 벌어서 2016년에는 상가를 사도록 계획하십시오. 귀하는 연월(年月)이 충돌되어 가족들의 조력은 인연이 없으나 본래가 장사로 돈을 모으게 됩니다. 장사와도 인연이 있지만 문서나 계약 관계 일에 귀인이 따라주어 그 재물로 문서를 쥐게 되어 작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제3의 남자로 모은 재산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구조이니 다음에 다시 상담 신청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30일 (음 윤 9월 7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늦어진다. **60년생** 자신이 있어도 말 앞세우지 말라. **72년생** 꽃은 피긴 어려워도 지는 건 잠깐이다. **84년생** 땀을 흘린 결과 풍성하구나.

49년생 입장표명은 확실히 하라. **61년생** 추진 중인 일은 주목을 받는다. **73년생** 술자리서 경거망동 않도록 조심할 것. **85년생** 부모의 후광을 톡톡히 본다.

50년생 마음 비우면 더 큰 그림이 보인다. **62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 **74년생** 직장인은 귀인을 만나 꿈을 키운다. **86년생** 마음속의 어둠을 빨리 걷어내라.

51년생 약속 못 지킬 일이 생김~. **63년생** 답을 내기 힘든 일이 생긴다. **75년생** 자신이 없는 일엔 함부로 나서지 말라. **87년생** 직장인은 우뚝 일어선다.

52년생 외출하면 입이 즐겁다. **64년생** 상황이 급해도 공수표 날리지 말라. **76년생** 우유부단한 처신은 도마 위에 오른다. **88년생** 바쁘게 움직이나 빈손이로구나.

53년생 가족과 공조 맞춰라. **65년생** 멀리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든다. **77년생**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 판국~. **89년생** 꾀돌이 제 꾀에 넘어간다.

42년생 일을 즐길 기회는 늘어난다. **54년생** 자신의 육감을 과신하지 말라. **66년생** 배우자와 데이트가 유쾌하다. **78년생** 정에 끌려서 부당한 편들지 말 것.

43년생 논란 있는 일에 발 담그지 말라. **55년생** 명예회복 할 기회는 온다. **67년생** 장기적 과제는 길게 생각할 것. **79년생** 생각도 못한 복덩이가 굴러온 격이다.

44년생 위안이 될 일이 생긴다. **56년생** 주거문제로 고민할 일 생길수도. **68년생** 창업희망자는 멘토 만나 의욕 넘친다. **80년생** 좋은 일 뒤 악재를 조심할 것.

45년생 시비거는 사람은 무시할 것. **57년생** 옛 솜씨를 발휘할 기회가 온다. **69년생** 갑자기 친절한 사람은 경계할 것. **81년생** 진리는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된다.

46년생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 **58년생** 아집의 굴레서 빨리 벗어나라. **70년생** 자진의 민낯과 대면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82년생** 질서 지키는데 앞장서라.

47년생 어른의 품위 유지에 신경 써라. **59년생** 자녀가 희소식을 전한다. **71년생** 추진 중인은 일은 진전이 없어 답답~. **83년생** 지금 그대로만 하면 충분하다.

PO 3차전, 넥센 강타선 부활할까?

서건창·박병호·강정호 활약 기대…오재영–리오단 선발

프로야구 플레이오프(5전3승제)에서 맞붙은 넥센 히어로즈와 LG 트윈스가 각각 1승을 챙기며 30일 잠실구장에서 3차전을 치른다.

넥센은 좌완 오재영을, LG는 리오단을 선발로 예고했다. 시리즈 전적 1승 1패를 기록한 양 팀에게 3차전은 한국시리즈 진출 여부가 달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넥센의 좀처럼 터지지 않은 핵심 타선 방망이가 살아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올 시즌 팀 홈런(199개)과 팀 장타율(0.509) 등 방망이에서 불을 뿜어낸 넥센 타선은 LG와의 플레이오프 두 경기에서 조용했다. 1차전 윤석민의 역전 3점포와 2차전 유한준의 홈런이 있었지만 정작 기대를 건 핵심 타자들은 침묵했다.

11년 만에 50홈런을 넘긴 홈런왕 박병호가 1~2차전을 통틀어 안타 1개를 치는 데 그쳤다. 유격수 최초 40홈런을 쳐낸 강정호는 안타 3개를 쳤으나 장타는 없었다. 프로야구 역대 최초 200안타 기록을 써낸 서건창도 두 경기에서 안타 1개에 그쳤다. 이택근은 9타수 무안타로 조용했다.

설상가상 넥센에게 앞으로 두 경기는 적지인 잠실구장에서 펼쳐진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준플레이오프 때 NC선수들도 놀란 인기 구단 LG의 홈 응원이 그렇다. 무엇보다도 넓은 잠실구장은 홈런이 잘 터지지 않아 투수에게 유리한 곳으로 꼽힌다.

실제로 넥센은 올해 홈인 목동구장에서 112개의 홈런과 장타율 0.542를 기록했으나 잠실에서는 홈런 13개와 장타율 0.446을 보였다. 팀 타율 역시 목동구장(0.312)과 잠실구장(0.285)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잠실에서의 팀타율은 2할대로 떨어진다. 게다가 잠실에서 LG를 만났을 때 팀 타율은 0.252로 약한 모습이었다.

넥센은 지난해 두산과의 준플레이오프에서 먼저 2승을 챙겼지만 3연패를 당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목동에서 모두 이겼지만 잠실 3~4차전에서 모두 패했다. 당시 넥센은 잠실에서 홈런 수 1-3으로 두산에 밀렸다. 장타는 김민성의 홈런과 박병호의 2루타 등 두 개밖에 없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중심 타자들이 정규시즌 잠실구장 LG전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강정호가 8차례 나서 홈런 3방을 터뜨렸고 박병호는 2루타 4개를 때리며 8타점을 올렸다. 서건창도 타율은 0.400을 찍어 활발한 공격을 펼쳤다.

LG 선발로 나설 리오단이 넥센전에 부진한 것도 넥센의 희망에 힘을 보탠다. 정규시즌 오재영이 LG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인 반면 리오단은 넥센전 4경기에 등판해 3번 졌고 평균자책점 6.35로 부진했다.

특히 서건창·박병호·강정호를 상대로 피안타율이 각각 0.600, 0.444, 0.667에 달한다. 박병호에게 홈런 1개, 강정호에게 홈런 2개를 허용한 아픈 기억도 있다. 리오단의 빠른 직구 제구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LG 트윈스의 선발투수 코리 리오단(위), (왼쪽부터)넥센 히어로즈의 서건창, 박병호, 강정호. /연합뉴스

박승희, 스피드스케이팅 태극마크 도전

31일까지 대표팀 선발전 참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2관왕 박승희(22·화성시청·사진)가 스피드스케이팅 태극마크에 도전한다.

박승희는 29일부터 31일까지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 겸 제49회 전국 남녀 종목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선발전에는 남자 각 종목 국내랭킹 20위(1만m는 8위) 이내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여자는 종목별 랭킹 16위(5000m는 8위) 이내의 선수들이 나선다.

이상화(서울시청)를 비롯해 모태범, 이승훈(이상 대한항공) 등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을 선언한 박승희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소치 올림픽에서 2관왕(여자 1000m·3000m 계주)에 오른 박승희는 올림픽 이후 현역 은퇴를 고심하다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꾸기로 하고 이달 초까지 캐나다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했다.

이후 그는 이달 열린 공인기록회 여자 1000m와 500m에 참가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서 첫 공식 경기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선발전에서는 남자 단거리(500m·1000m) 5명, 장거리(1500m·5000m) 5명이 선발된다. 여자는 단거리(500m·1000m)와 장거리(1500m·3000m) 각각 4명을 뽑는다.

직전 시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에 오른 선수는 우선 선발되는데 이 대회가 열리지 않는 올림픽 시즌에는 올림픽 종목별 1~3위 선수를 우선 선발한다. 이에 따라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500m 금메달리스트인 이상화는 이 종목 우선 선발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남자 팀추월에서 사상 첫 은메달을 획득한 이승훈, 김철민, 주형준(이상 한국체대)은 개인종목에서 대표로 선발되면 팀추월 대표로 선발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

한편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매스스타트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 이에 쇼트트랙 출신 선수들의 장점이 발휘될 여지가 더 커졌다. 매스스타트는 레인 구분 없이 여러 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해 속도를 겨루는 종목이다. 몸싸움과 순간 스피드 등에 강점을 가진 쇼트트랙 출신 선수들이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학철기자

"죽을 힘 다해 던지겠다"

김광현, 메이저리그 도전 공식 선언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좌완 에이스 김광현(26·사진)이 메이저리그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김광현은 29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걱정도 되지만 많은 이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 첫 걸음을 시작하려 한다. 실망시키지 않는 선수가 되겠다"고 말하며 메이저리그 도전 출사표를 던졌다.

이 자리에서 김광현은 "어깨는 이상 없다.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어린 시절 박찬호 선배를 보며 꿈을 키웠다. 왼손 투수이다 보니 랜디 존슨을 보며 큰 무대를 꿈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이저리그 타자들 모두와 붙어보고 싶다. 유인구에 속을지, 직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새로운 무대에 대한 자신감과 호기심을 나타냈다.

김광현의 메이저리그에 대한 열망은 대단했다. 소속 팀과 보직은 상관없다고 말할 정도다. 김광현은 "나를 진정으로 원하는 팀에 가고 싶다. 원하는 팀이라면 선발이든 중간이든 보직에 상관없이 죽을 힘을 다해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투수도 치고 달릴 수 있는 내셔널리그 팀을 더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LA 다저스의 류현진에 대해서는 "현진이 형이 길을 잘 닦았다. 나는 새로운 길을 닦아야 하는 선수"라며 "내 장점은 4일 휴식 로테이션에 체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원일 SK 와이번스 대표이사와 민경삼 단장 등이 함께 참석해 김광현의 도전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임 대표는 "에이스가 떠나면 구단은 손실이지만 국위 선양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진출에 동의하며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SK는 다음달 1일 한국야구위원회(KBO)를 통해 김광현의 포스팅을 공시할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프로농구 전적 (29일)

팀	1Q	2Q	3Q	4Q	합계
KT	10	18	16	23	**67**
삼성	24	17	21	15	**77**
KCC	17	13	22	19	**71**
SK	15	22	24	22	**83**

프로배구 전적 (29일)

현대캐피탈	3	1	LIG손해보험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천연미네랄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